

기본연구보고서 2008-00

# 도시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niversal Design for Urban Planning

문 경 원





# 머 리 말

대전 유니버설 디자인 계획(UDP ; Universal Design Plan)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고, 대전에 거주하면서 안전하고, 안심하고 쉽게 이용가능토록 건물과 제품, 그리고 모든 도시설계를 포함하는 도시환경적 측면 등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이다.

특히 대전시에서는 도시성장의 과도기적 시점에서 도시의 소프트적 측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적 측면을 강화하고 중심이 되도록 도시를 설계하고 디자인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다.

본 연구는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및 대전시를 방문하는 방문객 등 모든 사람이 어떠한 장소에서 불편함에 없도록 안전·안심하는 생활이 가능토록 할 수 있는 사회 조성을 일환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의 도시를 실현시키기 위해 시도한 보고서이다.

본 연구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개관과 국내외 유니버설 디자인의 사례를 분석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지침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사례조사의 범위를 가로환경 분야만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과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연구를 시발로 대전시의 모든 분야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보고서가 유니버설 디자인에 초기 단계의 시도에 불과하지만, 인간중심의 도시 계획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시민에 대한 대전 유니버설 디자인의 기본마인드 고취, 시민의 적극적 참여,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대전의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향후 연구도 기대하는 바이다.

2008. 11.

대전발전연구원장 **육 동 일**



#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요약>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모든 시설물은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며, 도시기반이나 물리적 시설의 구성과 관련되는 도시계획은 보다 ‘인간중심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 인간중심의 도시계획이란 장애의 유무를 떠나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도시로 그 중심에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 UD)이 위치하고 있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공공시설의 이용을 불편해 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을 정도로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이 생소하며, 아직도 도시계획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이 보편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특히, 대전시에서는 도시성장의 과도기적 시점(인근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인구증가 등의 변수고려)에서 도시의 소프트적 측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적 측면을 더욱 강화하여 국가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모범적인 도시를 설계하고 이에 부응한 디자인을 구상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다.

## 2.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대전 유니버설 디자인 계획(UDP ; Universal Design Plan)을 수립하여 대전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고, 대전에 거주하면서 쾌적하게 느끼고, 안심하며 이동할 수 있도록 모든 공공시설물과 도시기반 시설 등을 도시환경적 측면에서 새롭게 계획하고, 설계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시하는데 있다.
- 특히 현재 일본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주민에게 만족도를 최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의 도입이 활발히 전개시키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선행연구로서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도입하게 된 배경과 추진되는 시책 및 추진 요건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구체적으로는 시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편리성과 용이성을 제공하는 각종 제도와 서비스 등의 소프트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생활과 관련된 도로, 건물, 교통시설 등 도시의 가로환경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대전 유니버설 디자인 계획(UDP)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침서를 제공하고자 한다.

## 3. 연구범위 및 방법

- 연구범위는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의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고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을 소개하고 대전의 유니버설 디자인 사례를 분석한 후 대전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에 관하여 논의한다.
- 연구방법은 문헌조사를 활용한 자료를 분석하고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연구방향을 도출하고 대전지역의 사례를 조사하여 그 문제점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개관

-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 UD)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창조적 패러다임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디자인을 의미한다.
- 유니버설 디자인은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포용하는 디자인이며, 누구나 지체장애인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디자인으로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된다.
- 유니버설 디자인은 주로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장애를 제거한다는 의미인 배리어 프리(무장애) 디자인과 차이가 있으며, 배리어 프리 추진을 유니버설 디자인 추진과정에서도 생각해야 한다.
- 유니버설 디자인은 1960년대 후반 장애인 지원과 고령화 사회 진입을 원인으로 미국에서 출발해서 1970년 Ronald Mace에 의해 처음 지칭되었지만, 현재는 일본에서 더 적극적으로 실천되고 있다.
- 유니버설 디자인 접근방법은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 이용자의 참여와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항상 물음을 갖는 것이며,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유념해야 하며, 유니버설 디자인의 효과는 여행효과, 편익과 비용, 균등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 관련 법규를 보면, 국내 관련 법규는 장애인 시설관련 법규를 비롯해서 2000년 1월 11일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편의시설 확충 국가종합 5개년 계획(2000~2004)’ 이 대표적이며, 일본 관련 법규는 배리어 프리법, 교통배리어 프리법, 배리어 프리신법 등이 있고, 미국 관련 법규는 건축장애법을 비롯하여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이 제정되었다.

### Ⅲ. 국내 · 외 유니버설 디자인 사례

#### 1. 외국 사례

- 일본 국토교통성의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 개요를 보면, 그동안 배리어 프리화가 진행되었지만, 앞으로 공평, 유연, 참여의 관점에서 유니버설 디자인과 공유하여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지침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카나가와현(神奈川県)은 ‘등불운동’을 전개하면서 안심하고 쾌적하게 살수 있는 마을 만들기를 촉진하기 위해, 시설의 하드한 면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1995년 ‘神奈川県 복지거리 만들기 조례’가 제정되어 공공시설의 배리어 프리화가 종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오키나와현(沖縄県)은 장수현이기 때문에 모든 주민이 사회의 담당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수반하는 것을 전제로 사회 환경 만들기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모두가 이용하기 쉽고 지역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다.
- 사가현(佐賀県)은 오랜 역사와 풍요로운 자연을 중요시하며 전통이라는 부가가치를 더하여 모든 세대가 누구라도 휴식하며 밝고, 즐겁고,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인재육성까지 고려하고 있다.
- 아오모리현(青森県)은 안전한 생활과 문화, 동등한 정보전달, 빈틈없는 서비스, 풍요롭고 친절함을 기반으로 지역성, 참여, 지속성을 중요시하면서 추진하고 있다.
- 오카야마현(岡山県)은 다양한 주체가 연계하면서 주민 일상생활의 발상전환과 쾌적성을 유지하도록 매력 있는 디자인을 추진하고 있다.



- 야마나시현(山梨県)은 관광자원 및 지역적 특성을 살려 환경자원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친절한 마을 만들기과 장기적 순환형 사회를 형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 후쿠시마현(福島県)은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유지하며, 마음에 닿고, 떠나지 않고 지속되는 디자인을 추구하며 시설을 만들고 참여하며 평가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였다.
- 하마마쓰시(浜松市)는 생활공간, 이동공간에서 피난시설까지 실효성 있고 이용자 특성에 맞추어 시민을 배려하고 그들이 원하는 공공건축물을 만들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였다.

## 2. 국내사례

- 대전광역시는 금년 4월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도입했으며, 이에 맞추어 단계별로 로드맵을 세웠다. 유성구 학하지구에는 ‘보행자 중심의 무장애 거리’와 ‘테마(자연과 사람)가 있는 거리’를 조성할 예정이다.
- 대구광역시는 현재, 지역시설에 산재한 배리어 프리 문제점을 파악하는 실정에 있다.
- 경상북도는 제2차 경상북도 편의시설 확충 5개년 계획(2005~2009)을 수립하여 확충해 가고 있으며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시설을 예시하여 추진하고 있다.
- 충청도는 예산·홍성의 도청 이전 신도시를 장애인·노약자 등 시민 모두가 일상 생활에 전혀 장애를 느끼지 않는 ‘무장애 도시(일명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 광명시는 KTX 광명역세권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조경설계를 도시의 생태허브로 조성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화성시는 (가칭) ‘화성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추진’ 조례를 현재 입법예고를 끝내고 시 의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 서울 영등포구는 당산3가와 여의나루길 2곳에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디자인 거리를 조성한다.
- 기타 단체의 사례를 보면,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2008년 8월부터 ‘장애인 산림휴양 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함께하는 UD실천연대’는 이색적인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보급운동을 벌여, 성과를 거두고 있다.
- 국내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은 주로 베리어 프리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IV. 대전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방안

### 1. 대전시의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추진 계획

- 대전시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기능적 도시와 쾌적하고 푸른 삶의 도시를 구현하고자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를 추구하고 있다.
- 2008년 준비단계, 2009년에는 확산단계를 거쳐 2010년에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로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시킬 예정이다.
-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도입,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정비사업 추진, UD STREET 시범사업 추진, 민간 건축물 자율정비 사업 추진 등이 있다.

- 기대효과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선도 도시이미지와 고령화에 준비된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 2. 대전시의 유니버설 디자인 사례조사

- 대전지역의 배리어 프리와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의 전단계인 장애인, 노약자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는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의 대상지역은 필자가 생활하고 있는 유성구 구즉동(관평동, 송강동일원)과 주변 신탄진동, 그리고 근무처 인근의 서구 월평동, 시청사 주변을 중심으로 배리어 프리와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였다.
- 조사대상은 대전지역의 사회기반시설의 하나인 도로 및 보행환경, 교통시설 등 가로환경시설과 생활주변시설을 중심으로 2008. 7-10월에 걸쳐서 필드조사를 실시하였다.
- 가로환경시설은 건물로의 접근성, 주차장, 현관주위, 경사로, 출입구, 엘리베이터, 도로에서의 보도와 차도의 분리, 보도의 폭과 구배, 횡단보도, 입체횡단시설, 단차(턱), 보도포장, 벤치, 음수대, 공중전화기 등을 추출하였으며, 이들의 배리어 프리와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 3. 사례지역 가로환경의 문제점 및 시사점

#### 1) 하드웨어적 측면

##### □ 보도

- 보도의 문제점으로는 보도와 차도사이의 단차에 의해 넘어지기 쉽고, 보도 포장의 마감으로 인한 약간의 단차의 존재, 벤치 등 휴식시설이 미비하다.
- 보도 위에 주차된 자동차와 도로변에 간판이나 상품의 진열로 인하여 보행 공간 확보가 어렵고, 시각장애자용 유도 블록 설치의 미비 등이 지적되었다.
- 특히 휠체어나 유모차의 통행에 대한 보도의 문제점으로는 보도의 단차가 지적되었으며, 횡단구배가 커서 위험이 내재해 있고, 각종 매설물 시설의 뚜껑 돌출, 방치된 쓰레기 등이 장애가 되고 있어 통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보도포장의 요철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하다 등이 지적되었다.

##### □ 주차장

- 장애인용 주차장이 확보되더라도 그곳에서 목적건물로의 이동에 있어서 자동차의 위험에 노출된 경우도 많았으며 장애인 주차장의 폭이 일반 차량을 주차하는 곳과 똑같은 크기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 장애인 주차장이 잘 설치된 공공시설물에도 입구에 장애인 주차장을 알리는 안내 사인이 필요하다고 보며, 장애인 주차장에 정상인들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이 눈에 띄었다.

##### □ 현관 및 출입구 주위

- 오래된 건물의 경우 거의 단차가 있음으로써 출입에 어려움이 있고, 새로 건축된 건물의 경우에도 단차가 존재하였다.
-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등 교육시설의 경우 중앙의 현관을 통하는 곳에만 경사로가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학교에 다니는 장애인의 출입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경사로

- 아직 배리어 프리 단계로 나타났으며, 경사로의 경사도가 심한 경우 휠체어의 이용에 위험이 내재한 경우도 볼 수 있었으며, 경사로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도 보였다.
- 출입구는 상점의 경우 거의 단차가 심했으며, 건물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점 주인들이 임의로 설치한 경사로가 많았다.
-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시설의 경우 출입문이 자동문으로 설치된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엘리베이터

- 엘리베이터시설은 휠체어 사용자나 시각 장애인이 혼자서라도 조작이 가능하여, 장애인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앞에 유도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대전시청의 경우 출입구로부터 엘리베이터 까지 유도블록이 잘 정비되어 있으나, 대부분 출입구에서 엘리베이터까지의 유도 블록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 입체횡단시설의 엘리베이터는 점검 중, 사용중지 등의 표시가 되어 있었으며, 작동되지 않아 노약자, 장애인들이 이용이 쉽지 않았다.

## □ 보차분리

- 보차분리는 대부분 잘 되어있다고 볼 수 있으나 페인트칠이 낡아 구분이 어려운 곳이 눈에 많이 띠었다.
- 최근 자전거 이용이 많은 때에는 보차분리 시 자전거 도로 표시가 필요하다고 보며, 자전거의 통행로의 표시가 일정치 않아 거리의 좌측, 우측으로 확실히 정했으면 한다.
- 보행도로와 자전거의 통행이 병행된 표시가 걸려 있는 도로가 대부분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 보행 및 자전거 통행량이 많은 도로의 경우 자전거 도로와 보도와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 □ 횡단보도

- 횡단보도의 경우 아직 시각장애자의 이용 상황을 배려한 음향식 신호가 전무하고, 차량 통행량이 적은 곳에 설치되는 보행자 작동 버튼 스위치(버튼을 누른 후 잠시 기다리면 신호가 들어옵니다)의 경우 차량 통행이 잦은 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버튼을 눌러도 들어오는 신호 시간은 안 누르고 기다릴 때와 똑같았다.
- 교차점의 단차마감이 부실하고, 보도와 차도 차이의 단차가 심한 경우가 많았으며, 보도 위에 맨홀 뚜껑, 공사 후 마감이 안 된 경우, 배수구의 위험성이나 난간의 미설치로 인하여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이용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 특히 휠체어이용자에 있어서 교차점의 단차로 인하여 활동에 지장과 신호 버튼의 설치가 필요, 횡단보도 통과 시간이 짧은 점 등이 지적되었다.
- 차도의 경우는 불법주차로 인한 통행의 불편, 목적건물로의 접근에 있어서는 주 출입구 부근의 단차가 존재하여 상하이동에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시각장애자용 유도블록의 미설치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함이 지적되었다.

## □ 공중 화장실

- 대부분의 공중화장실은 잘 정비가 되어 있었으며, 근린공원의 한 화장실은 클래식 음악이 흘러 나오는 곳도 있었다.
- 각 화장실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으나, 아침 시간에 조사를 해서 그런지 대부분 문이 작동되지 않았다.
- 장애인 화장실 문에는 미는 커튼식의 여닫이 문, 옆으로 열리는 자동문, 그리고 당기는 문 등 다양한 형태로 설치되어 있으나, 버튼을 누르는 자동문의 경우 작동이 되지 않았다.
- 유리로 만들어진 여닫이 문이나 밀고 당기는 문의 경우, 문의 중량으로 인하여 노약자 등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 음수전

- 공중장소에 설치된 음수전의 경우 주위에 단차가 있어서 휠체어 이용자들이 혼자서 이용하기가 어렵고, 음수전에 들어갈 때는 쉽게 들어가도 나올 때 무리가 있는 곳도 있었다.

### □ 공중전화기

- 최근 개인 휴대폰의 소유로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으나, 공중전화의 대부분은 휠체어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으며, 공중전화 박스에 문이 있는 경우, 노약자, 어린이의 이용에는 불편할 것으로 보였다.

### □ 버스정류장

- 시내버스 정류장은 버스의 도착을 알려주는 안내시설 등 하드웨어는 잘 정비 되어있으나, 정류장의 박스의 유리가 각종 스티커, 광고물 전단지 등의 탈부착 흔적, 음료수통, 우유통 등 각종 쓰레기로 지저분한 상태였다.
- 특히, 한 버스 정류장의 경우 버스가 서는 곳과 정류장의 거리가 멀거나, 길가의 가로수로 인하여 버스의 진입을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 2) 소프트웨어적 측면

### □ 시민의식의 고취

- 이번 조사에서 볼 때, 아무리 좋은 시설물과 기반시설을 갖추었다고 해도 시민의식부터 장애요소를 제거하여 성숙하지 않으면 배리어 프리 도시,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데 어렵다고 보며, 배리어 프리 도시,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를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민참여와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본다.
- 즉, 유니버설디자인의 보급을 위한 계몽과 시민들의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법과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한 인재육성, 고령자·장애자 등이 원활히 이동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이용에 수반하는 여러 정보나 고령자나 장애자의

사회참가를 촉진하기 위한 문화 정보 등을 가능한 한 신속하고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본다.

#### □ 모든 주체의 참여

- 고령자나 장애자가 생활하기 쉬운 사회기반정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이 지역에 있어서의 배려의 주체로서의 역할인식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이 고령자나 장애자에 대한 깊은 이해를 공통의 문제로서 인식하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 또한 시민·사업자·행정이 각각의 역할과 책임 아래에서 협동을 통하여 사회기반정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 유니버설 디자인개념의 사회기반시설 정비의 추진에는 사업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사업자의 이해와 협력이 없으면 실효성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 또한 행정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행정은 고령자나 장애자가 불편 없는 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일반시민에 대한 유니버설 디자인 이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자발적인 활동이 촉진되도록 이에 대한 보급 및 정보제공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4. 대전시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방안

### 1) 대전시 유니버설디자인 지침 설정

- 공공기관이 정비하는 도로, 하천, 공원, 공공건축물 등 공공시설을 비롯해서 민간 사업자에 의한 병원, 가게, 숙박, 오락시설 등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유니버설 디자인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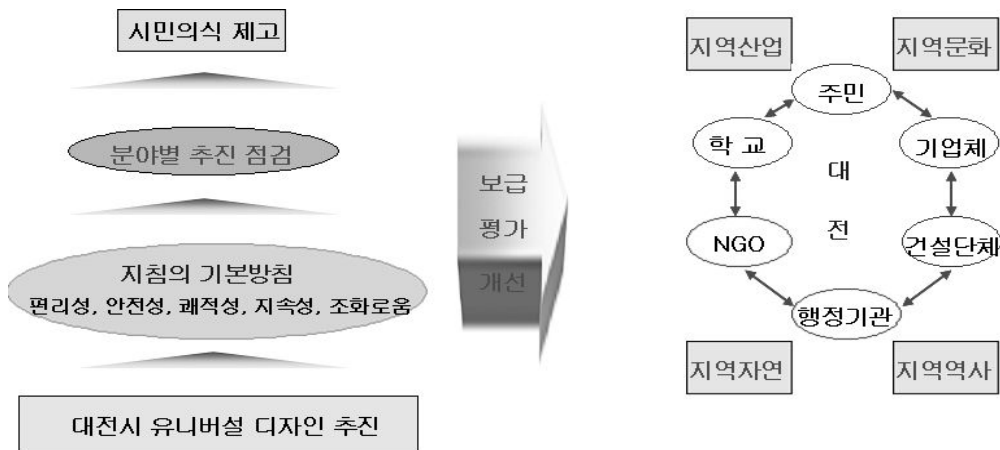


□ 지침 특징

- 누구라도 이해하기 쉬운 지침, 함께 만들고 함께 육성하는 지침, 변화에 대응해서 진화하는 지침, 이용목적별로 정리하는 지침이 되어야 한다.

□ 기본방침 설정

- 사회기반시설 정비에 있어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은 종합적 시점에서 계획을 세워야하고 이를 토대로 방향과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두고 미래의 사회환경 정비 비전을 확립해야 한다.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할 지 계획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조례 제정

□ 법률 정비

- 형식적인 방향에서 벗어나 종합적 관점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대전시 자체의 조례를 작성하고 적절한 운용이 필요하다. 강제성보다는 이용자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지도나 조언 등 운용의 기본전략이 요구된다.

-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타 지역도 종합적인 관점보다 장애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확대된 시점에서의 제정이 필요하다.
-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조례에는 목적, 정의, 시의 임무, 사업자의 임무, 시민의 임무, 기본방침, 추진계획의 책정, 추진협의회 설치, 계발 및 정보제공, 교육, 자원봉사 활동 촉진, 인재양성, 복지 용구에 대한 연구개발, 정비기준, 인증서 교부, 사전협의, 완료검사, 주택정비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 3)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추진협의회의 설치

-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추진협의회를 설치한다.
-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추진협의회’는 유니버설디자인 지역조성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15명 이내로 한다. 학식경험자와 지사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결정하도록 한다.

### 4)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지역 지정

- 안전하고 빠른 유니버설 디자인 지역조성을 추진하기위해 시설 운영주체를 정비하고 일상생활을 통해 삶의 질을 체험할 수 있는 시범운영 지역을 지정한다. 고령친화 지역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5)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 추진체계 마련

- 행정편의 위주에서 벗어나 대전시의 모든 시책과 관련지어 바람직한 방법을 추진하는 것이 옳으며 이를 총괄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

- 지금까지 복지행정의 일부로 추진되어 왔지만, 다른 행정조직과의 제휴가 불분명하여 많은 문제가 노정될 수 있으므로 강력한 리더십을 통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관할하는 단일 행정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 6) 유니버설 디자인 보급

### (1) 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 모든 시민이 지역의 배려주체로서 역할인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민 개인이 고령자나 장애인에 대한 깊은 이해를 공통문제로 인식하고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사업자나 행정이 각각의 역할과 책임아래 협동을 통해 사회기반정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계몽활동이 중요하며, 행정의 역할도 중요하다.

### (2) 인재육성

- 유니버설 디자인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대학이나 관련 산업계, 시민단체 등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추진 핵이 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하며 행정기관을 시작으로 민간단체 등에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한 정보나 사례의 수집과 홍보, 조사, 연구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
- 이를 위하여 교사들의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지식과 이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건축이나 디자인 등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촉진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리더육성 및 연수나 학습기회 제공, 국내외 전문가 참여의 심포지엄 개최도 필요하며, 또한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축도 중요하다.

### (3) 정보제공

- 고령자나 장애인이 필요한 정보를 원활하게 얻을 수 있고 사회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신속하고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정보공개 방법도 논의해야 한다.

### (4)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일반시민들에게 유니버설 디자인을 이해하고 지역에 조성하기 위한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참여를 유도하도록 배포한다.

### (5) 강좌 운영

-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지역조성을 위한 강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보가 행정기관, 민간단체, 시민 모두에게 용이하게 제공될 수 있다.

## 6) 시민의식 제고

- 장기적으로는 모든 생활환경에 유니버설 디자인적인 견해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설의 물리적인 제약을 보완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는 마음자세가 필요하다.
- 도시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공간의 변화만이 아니라 유니버설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역민(시민) 스스로 자기문제화해서 ‘마음의 장벽’을 해소하는 동시에 조금씩 ‘의식의 개혁’을 이루는 것이 요구된다.

## <정책적 시사점>

-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대전시에서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도시조성이야말로 실천과제이자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 더불어 살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It’s Daejeon’을 조성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구체적이고 필요 충분한 ‘It’s Universal’을 지향하고 있는 것과 같다.
- 특히, 신개발지역 등 외부 인구유입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시의 시범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보고서에서는 향후 유니버설 디자인 추진을 위해 주로 공공시설, 교통시설 등 물리적 공간을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침을 설정하였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시민의식의 고취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적극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시민을 계몽하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데, 각 학교·기업체·시민단체·행정기관 등의 교육프로그램에 교양강좌를 개설하여 다양한 정보와 시민의식을 제공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시민의식은 시민으로서 공동체에 갖는 의식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강조해야 하며, 개인적 권리를 넘어 공동체 유지발전에 요구되는 시민의 자질을 말한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이를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인터넷 시민교육을 강화, 공청회 개최, 시민평가 제도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목 차 -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I
<b>I. 연구의 개요</b> .....	<b>3</b>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
2. 연구목적 .....	4
3. 연구범위 및 방법 .....	5
<b>II. 유니버설 디자인에 이론적 고찰</b> .....	<b>9</b>
1.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 .....	9
2. 유니버설 디자인 태동배경 .....	12
3. 유니버설 디자인 원리 .....	13
4. 유니버설 디자인 접근방법 .....	17
5. 유니버설 디자인 효과 .....	18
6.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법규 .....	19
<b>III. 국내·외의 유니버설 디자인 사례</b> .....	<b>21</b>
1. 외국 사례 - 일본을 중심으로 .....	23
1) 일본 국토교통성의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 개요 .....	23
2)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	29
3) 지침 설정을 위한 시사점 .....	53
2. 국내 사례 및 시사점 .....	55
1) 지방자치단체 사례 .....	55
2) 기타 단체의 사례 .....	67
3) 지침 설정을 위한 시사점 .....	69

<b>IV. 대전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방안</b> .....	<b>73</b>
1. 대전시의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추진 계획 .....	73
2. 대전시의 유니버설 디자인 사례조사 .....	79
1) 대전시의 유니버설 디자인 조사개요 .....	79
2) 대전시의 유니버설 디자인 현황 .....	82
3. 사례지역 가로환경의 문제점 및 시사점 .....	104
1) 문제점 .....	104
2) 시사점 .....	107
4. 대전시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방안 .....	108
1) 대전시의 유니버설디자인 지침 설정 .....	108
2) 대전시의 유니버설디자인 지역조성 추진방안 .....	112
<b>V. 결 론</b> .....	<b>121</b>
1. 요약 .....	121
2. 정책적 시사점 .....	122
<b>□ 참고문헌</b> .....	<b>123</b>

## - 표 목 차 -

<표 II-1> 유니버설 디자인과 배리어 프리 디자인의 차이.....	11
<표 IV-1> 대전시 유니버설 디자인 추진단계별 순기표.....	76
<표 IV-2> 가로환경의 요소별 정비지침 체크리스트 .....	81

## - 그림 목 차 -

<그림 I-1> 연구내용의 체계.....	5
<그림 III-1> 배리어 프리 정책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으로의 전환단계.....	65
<그림 IV-1> 대전시 유니버설 도시 구현 추진방향.....	73
<그림 IV-2> 대전시 유니버설 디자인 진행단계.....	74
<그림 IV-3> 대전시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추진 프로세스.....	75
<그림 IV-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77
<그림 V-1> 대전시 유니버설 디자인 지침 구성.....	111





# I

##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3. 연구범위 및 방법



# I. 연구의 개요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인간은 누구나 일생을 살아가면서 시설물의 보조를 받거나 타인의 도움을 받는 부자연스러운 기간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모든 시설물은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며, 도시기반이나 물리적 시설의 구성과 관련되는 도시계획은 보다 ‘인간중심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 인간중심의 도시계획이란 장애의 유무를 떠나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도시를 말하는데, 그 중심에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 UD)이 위치하고 있다.
- 선진국은 친환경적이며 인간중심의 도시계획을 지향하여 공공건물과 일상시설물 설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안전하며 편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전 분야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공공시설의 이용을 불편해 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을 정도로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이 생소하며, 아직도 도시계획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이 보편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그렇지만 유니버설 디자인 수요는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시계획의 방향을 유니버설 디자인의 관점에서 반드시 새롭게 고려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 특히, 대전시에서는 도시성장의 과도기적 시점(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인구증가, 첨단과학기술의 수도 등의 변수고려)에서 도시의 소프트적 측면뿐만 아

나라, 하드웨어적 측면을 더욱 강화하여 국가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모범적인 도시를 설계하고 이에 부응한 디자인을 구상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다.

## 2. 연구목적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대전지역에 적용 가능한 유니버설 디자인과 도시 계획의 방향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둔다.
- 도시계획 측면에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은 가능하면 모든 사람, 즉 연령, 성별, 신체적 능력, 국적, 문화, 인종 등 사람들의 다양한 특성과 차이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설계하는 ‘총체적 도시디자인’을 의미한다.
- 본 연구의 목적은 대전 유니버설 디자인 계획(UDP ; Universal Design Plan)을 수립하여 대전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고, 대전에 거주하면서 쾌적하게 느끼고, 안심하며 이동할 수 있도록 모든 공공시설물과 도시기반 시설 등을 도시환경적 측면에서 새롭게 계획하고, 설계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시하는데 있다.
- 특히 현재 일본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주민에게 만족도를 최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의 도입이 활발히 전개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선행연구로서,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유니버설디자인을 정책에 도입하게 된 배경과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시책들을 조사하고 그 추진 요건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구체적으로는 시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편리성과 용이성을 제공하는 각종 제도와 서비스 등의 소프트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생활과 관련된 도로, 건물, 교통, 주택 등 도시의 하드웨어적 측면을 대상으로 대전형 도시

시스템을 적용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대전 UDP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침서를 제공하고자 한다.

### 3. 연구범위 및 방법

- 연구범위는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의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고 일본의 주요 자치 단체를 비롯한 국내·외 연구를 종합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을 소개한다. 그리고 대전의 유니버설 디자인 사례를 분석한 후 대전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에 관하여 논의한다.
- 연구방법은 문헌조사를 활용한 자료를 분석하고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연구방향을 도출하고 지역의 사례를 조사한다.



<그림 1-1> 연구내용의 체계



## II

---

###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개관

---

1.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
  2. 유니버설 디자인 태동배경
  3. 유니버설 디자인 원리
  4. 유니버설 디자인 접근방법
  5. 유니버설 디자인 효과
  6.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법규
-





## II.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개관

### 1.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

- 우리는 어떤 국가에서 살고 있더라도 연령, 성별, 문화, 심신능력 등 다양한 차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다. 그리고 삶을 뿌리내리고 있는 해당 지역과 사회마다 개개인이 처한 상황은 다르다. 이와 관련하여 21세기에는 더욱 더 사람들이 지닌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 이러한 사회 환경이 실현된 사회가 ‘유니버설 사회(Universal Society)’이며, 이러한 사회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로 정한 기법이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 UD)이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21세기의 창조적 패러다임이다.
  - 유니버설 디자인은 전부의, 보편적인, 공통의 등을 뜻하는 ‘유니버설’ 과 계획, 설계, 구상을 의미하는 ‘디자인’ 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용어임. 즉, 누구에게나 어려움 없이 적용될 수 있는 디자인을 뜻하며, 경우에 따라 inclusive design, accessible design, just accessibility 등으로 말해진다.
- 유니버설 디자인은 인간중심의 디자인, 평생디자인을 말한다. 그래서 이 디자인은 더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어 내고, 물리적 환경을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만들어 이미 만들어진 도시환경에 신경을 쓰지 않는 인간을 위한 도시디자인을 말한다.
- 유니버설 디자인은 모든 사람이 인간소외에서 벗어나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 디자인을 말한다. 실제로 유니버설 디자인에서 말하는 장애는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신체적 능력의 부족, 특정 부분의 핸디캡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급속한 산업과 과정에서 잃어버릴 수 있는 인간을 강조하기 위한 디자인이다.

- 유니버설 디자인은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포용하는 디자인을 말한다. 장애가 없는 사람은 물론이며, 장애인이나 다른 특정한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한다. 그래서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디자인 하는 것이 목표이며 다양한 사람들을 동등한 사용자로 인정함으로써 잠재적 이용자들을 폭넓게 수용하는 시설디자인을 말한다.
- 유니버설 디자인은 사람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지체장애인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디자인을 말한다. 태어날 때부터 지체장애인이 있을 수 있고 살아가면서 지체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노년기에는 누구나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지금까지 디자인 기준은 건강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 유니버설 디자인은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는 디자인을 말한다. 초기에는 제품이나 건물의 디자인,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고려되었지만, 최근에는 교통, 마을 만들기, 정보, 관광, 교육, 건강, 환경, 방재, 서비스, 행정사무에 이르기 까지 유형·무형을 불문하고 광범위하게 진화되어 사용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말한다.
-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다(Covington & Hannah, 1996).
  - J. Langmir은 다수의 사용자가 존엄성과 독립성을 증진시키는 디자인, 미적으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디자인, 최적의 요구를 수행하는 디자인, 소비자를 이해하는 디자인, 지속적인 디자인을 들고 있다.
  - R. Whitehouse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 모두에게 반응하는 디자인, 가능한 모든 자원들이 한 시점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접근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을 들고 있다.

○ P. A. Moore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요구를 평등하게 반영하는 디자인을 들고 있다.

□ 유니버설 디자인과 배리어 프리(무장애) 디자인의 차이

- 유니버설 디자인과 가까운 개념으로 배리어 프리 디자인(Barrier Free Design)이 있다. 배리어 프리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주로 신체적 능력 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해가면서 장애를 제거한다는 의미이며, 유니버설 디자인이 제창되기 전에 폭넓게 사용되어 왔다.
- 두 개념 모두 모든 사람들에 의해 살기 좋은 사회를 목표로 하는 방향성에서는 일치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다만, 아직 사회 속에 장애가 존재하는 이상 배리어 프리 추진계획을 유니버설 디자인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도 중점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표 II-1> 유니버설 디자인과 배리어 프리 디자인의 차이**

구 분	유니버설 디자인	배리어 프리 디자인
정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음부터 이용하기 쉽도록 하는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 등의 기존 장애를 제거하는 것</li> </ul>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 연령, 국적,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로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용을 염두에 두고 정비함</li> </ul>
구체적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사람을 위한 화장실 설치</li> <li>• 폭넓은 보도나 높낮이 차이가 없는 보도 정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설치</li> <li>• 보도의 폭이나 이미 존재하는 높낮이 차이를 없애기 위한 정비</li> </ul>

## 2. 유니버설 디자인 태동배경

- 유니버설 디자인의 태동은 1960년대 후반 두 가지의 커다란 사회 흐름에 의해 빛을 보았다.<sup>1)</sup>
  - 첫 번째 현상은 유례없는 미국의 전쟁 사상자 발생이다. 베트남 전쟁의 후유증으로 고통 받는 이들을 포용하고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지원의 시각에서 필요한 접근방법이 유니버설 디자인이다.
  - 두 번째 현상은 북유럽의 고령화 사회 진입이었다. 당시 북유럽의 노인층들을 도울만한 충분한 자원봉사자가 없었다. 따라서 건강하지 못한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 방안으로 모색된 것이 유니버설 디자인이다.
  
- 그 외에,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장애인 관련 시설이 확대되면서 그들의 인권신장도 유니버설 디자인을 성장시키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경제수준이나 의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장애와 비 장애를 구분하는 필요성도 점차 낮아짐으로서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
  
- 유니버설 디자인은 1970년 Ronald Mace에 의해 처음 지칭되었고 197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장애인을 위한 특수한 시설 설치와 공간조성에 따른 부가적 비용과 문제점을 줄이고자 시작되었다.
  
-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이 처음 나온 곳은 미국이지만, 각 국으로 확산되면서 그 실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 현재는 미국보다 일본에서 더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실천되고 있음. 미국이 공공서비스 영역에 한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일본은 공공서비스 영역은 물론 시장경쟁력 확보 수단으로 산업부문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1) 송낙헌, 유니버설 디자인적 도시계획 접근방향.

-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유니버설 디자인이 건축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음. 하지만, 관계자의 인식 부족, 수행능력 미비, 참여방식의 혼란 등으로 인하여 현재는 홍보수단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 3. 유니버설 디자인 원리

□ R. Mace의 4가지 원리는 다음과 같다.<sup>2)</sup>

- Support Design : 기능적 지원성이 높은 디자인이다.
  - 유니버설 디자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능상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예를 들어 주택내부 조명의 경우 밝기가 적절치 않으면, 시각의 정확성이 떨어져 이동에 제한을 받으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싱크대 밑이나 계단의 하단부위에 조명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 Adaptable Design : 수용 가능하도록 융통성을 지닌 디자인이다.
  - 모든 제품은 이용환경에 따라 조절이 가능해야 함. 예를 들어 작업대나 싱크대의 경우 높이를 조절가능하게 설계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 Accessible Design : 모든 장애물이 제거된 상태의 접근 가능한 디자인이다.
  - 휠체어 사용자나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건축물 입구의 턱을 없애거나 자동문을 설치하거나 보도의 색채와 적절한 패턴을 유지하면서 질감 있는 재료를 사용해 불의의 사고를 최대한 줄일 수 있어야 한다.
- Safety-oriented Design :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거나 접근하기에 안전한 디자인이다.
  - 장애가 없는 사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설계이어야 한다. 건축물 계단의 경우를 생각하면, 모서리를 둥글게

2) Ronald L. Mace, The Accessible Housing Design File-Barrier Free Environments. Inc., Van Nostrand Reinhold. 1991.

하여 어린이나 노약자가 넘어졌을 때 다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음. 이처럼 사회적 약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 안전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North Carolina대학 유니버설 디자인 센터의 7가지 원리는 다음과 같다.<sup>3)</sup>

- Equitable Use : 특정인에게 편견을 두지 않는 공평한 디자인으로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시장성이 있는 디자인을 말한다.
  - 누구라도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며, 차별감이나 굴욕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누구라도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아 안전성을 얻으며, 매력 있는 디자인으로 한다.
- Flexibility in Use : 개개인의 다양한 선호와 능력을 수용하는 디자인으로 개인의 능력을 존중하는 유연한 디자인을 말한다.
  -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하며,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 모두 사용 가능하며, 이용자가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조작이 가능하게 하며 사용하기 쉬운 페이스에 맞추도록 한다.
- Simple and Intuitive Use : 이용자의 경험, 지식, 언어능력, 또는 현재의 집중수준에 상관없이 이해하기 용이한 디자인으로 쉽게 이해하고 수공하는 직감적인 디자인을 말한다.
  - 불필요하게 복잡하지 않게 하며, 직감적으로 바로 사용하게 하며, 문맹과 상관없이 누구라도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바꾸며, 정보는 중요도가 높은 순으로 정리하며, 조작을 위한 안내서나 적절한 피드백을 통해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 Perceptible Information : 주변 조건이나 사용자의 감각능력에 상관없이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해 주는 디자인으로 시각과 청각, 촉각이 살아있는 감성적인 디자인을 말한다.
  - 필수적인 정보를 충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림이나 문자 등 언어적이고 촉각적으로 여러 방법을 병용하며, 중요한 정보는 가능한 한 강조해서 읽기

3) Center for Universal Design. Designing for the 21st Century :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Universal Design of Information, Products, and Environments, NC: North Carolina University.

쉽게 함. 또한 정보를 가능한 한 구별해서 설명하기 쉽게 하며, 시각이나 청각 등 감각제한이 있는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다양한 도구라도 정보가 잘 전달되도록 한다.

- Tolerance for Error : 위험과 사고나 의도되지 않은 행동의 결과를 완화시켜주는 디자인으로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안전한 디자인을 말한다.
    - 무의식적 행동, 위험이나 실수를 최소화 방지하고 그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경고를 하며, 이중 안전장치 제공과 주의가 필요한 조작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다.
  - Low Physical Effort : 최소한의 피로를 유발하며 효율적으로 편안하고 독립적 자세를 유지하며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최소한의 노력을 중요시하는 간결한 디자인을 말한다.
    - 자연스럽게 사용하며, 그다지 힘을 들이지 않고 사용하며, 같은 동작을 반복하지 않도록 최소화 하며, 신체에 무리한 부담이 계속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 Size and Space for Approach and Use : 사용자의 신체 치수·자세·이동에 상관없이 다양한 신체크기를 수용하며, 접근·도달·조작 및 사용에 적절한 크기의 공간을 제공하고, 보조 재활기구를 사용하기 위한 효율적인 공간구조를 가지는 쾌적한 디자인을 말한다.
    - 서 있거나 앉아 있어도 중요한 것이 보이고 즐거움을 전달되도록 하며, 여러 가지 손잡이 크기를 조절하며, 보조원이나 도우미를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 일본 동경도의 ‘복지마을 만들기 추진협의회’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의한 시설 정비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나타내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5가지 관점을 제시했다.<sup>4)</sup>
- 공평 : 누구든지 함께 시설이나 설비를 이용할 수 있다.
    - 고령자나 장애인, 어린이, 외국인 등 다양한 욕구를 고려하고 있다.

4) 유니버설디자인의理念に基づいて福祉のまちづくりの推進に向けて, 東京都福祉のまちづくり推進協議會.



- 기본적으로 누구도 같은 동선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경로로 되어 있다.
  - 누구라도 차별감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복수의 이용수단, 사용수단이 있고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간단 : 이용자의 지식이나 능력, 상황에 관계없이 용이하게 시설이나 설비를 이용할 수 있다.
- 사람의 움직임을 배려해서 알기 쉽게 배치하고 있다.
  - 시설이나 설비의 이용방법을 간단하고 알기 쉽게 되어 있다.
  - 정보는 필요한 장소에 적절한 방법으로 잘 구비되어 있다.
  - 정보는 중요한 순서로 알기 쉽게 제공되어 있다.
- 안전 :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위험 없이 시설이나 설비를 이용할 수 있다.
- 누구라도 위험한 것이나 장소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 설비나 기구 등을 안전하게 조작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 무심코 저지른 실수가 있어도 위험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 기능 : 사용하기 편리하게 시설이나 설비를 이용할 수 있다.
- 어떤 신체조건을 가진 사람이라도 이용하기 쉽게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 조작설비는 스스로 움직여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다.
  - 설비나 기구 등을 작은 힘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다.
- 쾌적 : 기분 좋게 시설이나 설비를 이용할 수 있다.
- 누구라도 쾌적하고 편안함을 느끼도록 소재나 색상을 배치하고 있다.
  - 시설 전체나 주위와의 조화를 배려한 매력 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
  - 풍요로운 생활을 느낄 수 있도록 질감이 높은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
  - 누구라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기분 좋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4. 유니버설 디자인 접근방법

- 유니버설 디자인 실천을 스스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일상생활을 하면서 항상 물음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자세이다. 이러한 측면을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방법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
    - 모든 상황에서 욕구만족을 완전하게 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이상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상을 향해서 보다 좋은 유니버설 사회를 꿈꾸어야 하며, 중요한 것은 하나의 방법에 집착하지 않고 유연한 사고를 갖는 것이다.
    - 이를 위해서 보다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개별요구에 대한 대응은 옵션으로 하며, 범용성이 높은 디자인을 제공하는 등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이용자의 참여와 개선을 위한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계획
    - 이용자와의 대화나 협의에 의해서 욕구를 파악하고 욕구가 대립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끼리 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얻어진 노하우를 축적해서 다음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점차 만족도는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 무엇인가를 할 때 그것을 이용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접근방법의 하나이다. 따라서 유니버설 디자인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불러 넣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 인프라 정비 등의 하드적인 측면, 정책과 같은 소프트적인 측면, 그리고 서비스와 같은 마음과 관련된 측면도 유니버설 디자인을 폭넓게 유지시키는 것임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

## 5. 유니버설 디자인 효과

□ 유니버설 디자인은 여러 가지 디자인 효과를 내포하고 있는데, 특히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그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sup>5)</sup>

○ 여행효과(travel impacts) 측면

- 유니버설 디자인은 통상적으로 이동에 부자유스러운 사람들을 위해 장벽을 제거하는 등 그 핵심은 수송(교통)수단 그리고 관련 서비스들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는 도보와 휠체어에 의해 목적지까지 직접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어 종래의 자동차 동반여행이나 보조교통수단 서비스 이용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대신 대중교통이나 보행자 시설을 이용한 이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 편익과 비용(benefits and costs) 측면

- 유니버설 디자인은 보행자, 시각장애인, 산책인, 손수레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전하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들 모두가 기동성 확보라는 편익을 누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보행자 연계망 구축에 따른 출발부터 목적지까지의 이동이 가능하여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교통시스템 운영의 탄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기동성 확보와 접근 용이성은 부자유스러운 사람들에게도 고용기회의 창출을 제공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적극적이고 활기찬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 균등효과(equity impacts) 측면

- 유니버설 디자인은 모든 사람들이 균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균등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신체적인 결함으로 기동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 물리적 환경의 개선에 따라 기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신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고용창출의 기회를 높일 수 있다.

---

5) 송낙헌, 전계논문.

## 6.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법규

### □ 국내 관련 법규

- 장애인 시설관련 법규는 1981년 6월에 제정된 심신장애자 복지법 제13조 (편의시설) 도로, 공원, 공유건물, 교통시설, 기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심신장애자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1985년에는 장애자 올림픽을 계기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최초로 법제화되어 부분적인 시설기준이 마련된다.
- 1994년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 및 장애인 시설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 1997년에 제정된 ‘장애인·노인·아동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이 대표적이다.
- 2000년 1월 11일 보건복지에서 ‘장애인·노약자 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편의시설 확충 국가종합 5개년 계획(2000~2004)’ 을 수립하여 발표했다.

### □ 국외 관련 법규

#### ○ 일본 관련 법규

- 신체장애자에 대한 법적 배려가 1949년에 시작되어, 1970년에 ‘심신 장애자 대책 기본법’ 이 제정되었고 1975년에는 신체장애자, 병약자, 노인의 이용을 고려한 설계 지침을 지정했다.
- 이후, 지방정부는 1996년 이바라키현(茨城県)의 ‘인간친화적인 마을 만들기 조례’ 의 경우처럼 독자적인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를 만들었고, 중앙정부는 1994년 ‘하트빌딩(Heart-building)법’ 을 만들었다.

- 2000년 11월에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법’ 을 만들어 철도역을 중심으로 항구·공항 등에서 이용할 경우 신체의 부담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

#### ◆ 일본의 배리어 프리법

배리어 프리법은 고령자 신체장애자의 공공교통기관을 이용한 이동의 원활한 촉진에 관한 법률로 1949년에 만들어진 신체장애자 복지법에서 비롯되었는데, 1982년 장애자 대책에 관한 장기계획 이후, 1993년 심신장애자 대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자를 위한 계획전략이 정비되었다. 또한 2002년에는 2003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10년간의 기본 방향을 책정하고 현재 시행 중이다.

---

#### ◆ 일본의 하트빌딩법

하트빌딩법은 고령자, 신체장애자들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특정 건축물의 건축 촉진에 관한 법률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던 1994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특정건축물 범위 확대, 이용의 원활화 기준적합 의무 규정, 규모변경 내용 추가, 지원제도 확대, 권한 이양 등의 내용을 강화하여 2003년 4월에 개정 시행되었다.

---

#### ◆ 일본의 교통배리어 프리법과 배리어 프리 신법

일본의 교통배리어 프리법은 미국의 ADA를 토대로 2000년 1월 제정되었으며, 2006년 이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기본구상이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한편, 배리어프리 신법은 2005년 7월에 발표된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다 종합적인 배리어 프리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하트빌딩법과 교통배리어 프리법을 혼합한 시스템이 요청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2006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 ○ 미국 관련 법규

- 1961년에 접근성을 위한 디자인을 최초로 제공하여 많은 주 정부가 건축법 규정에 이 기준을 채택하기 시작했으며, 1968년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모든 공공건물에서 신체장애자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 ‘건축장애법’ 을 제정하였다. 1990년에는 장애가 있는 미국인에 관한 법률인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가 제정되었다.

### Ⅲ

---

## 외국의 유니버설 디자인 사례 : 일본을 중심으로

---

1. 외국사례 - 일본을 중심으로
  2. 국내사례
  3. 지침 설정을 위한 시사점
-



## Ⅲ. 국내·외의 유니버설 디자인 사례

### 1. 외국 사례 - 일본을 중심으로 -

#### 1) 일본 국토교통성의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 개요<sup>6)</sup>

-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건강한 사람들을 주 이용자로 해서 거리나 교통을 정비해 왔지만, 고령사회와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높아지면서 배리어 프리화가 진행되었다. 또한 사회자본 정비에 있어서도 이러한 목표를 계획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해 왔다.
- 이후, ‘어디에서도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용하기 쉽게 하자’ 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한 사고에 의거해 보면, 이용자를 구별하지 않는「공평」함, 그들의 욕구에「유연」하게 대응함, 이용자의「참여」를 촉진하는 관점이 중요하게 부상했다.
- 하지만, 배리어 프리화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의 관점을 공유하여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과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나타난다.
  - 고령자나 신체장애인 등을 배리어 프리화 대상으로 해서 지적 장애인, 정신 장애인, 외국인, 어린이, 어린이 동반 등 다양한 이용자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 시설마다 독립해서 배리어 프리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시설을 연계하는 부서 등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거나, 여객시설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 일부만으로 배리어 프리화해서 추진하고 있을 뿐이다.

6) 유니버설디자인정책大綱, 国土交通省. 平成17年7月.



- 시설정비에서 시설의 배리어 프리화에 중점이 놓여져 있지만 하드한 정비와 소프트한 정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은 없어 정보제공을 추진하는 측면에서는 불충분하다.
  - 새로운 시설에 배리어 프리가 ‘의무 지우기’로 진행되고 있어 대부분을 점유하는 기존 시설에서 일정한 진보는 보이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때는 불충분하다.
- 따라서 국토교통성이 총 점검을 하면, 이러한 배리어 프리화의 과제만이 아니라 공공교통이나 마을만들기 측면에서도 과제가 나타난다.
- 서비스의 새로운 전개에 대해서 종래의 정책 틀만으로는 반드시 유효하지 않다. 또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관점에서 단계적 내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은 반드시 확립되어 있지 않다.
  - 공공교통에 있어서 다른 사업자간 접속이나 정보제공에 대해서 반드시 충분하게 대응하지 않고 있다.
  - 마을 만들기에서는 중심시가지 쇠퇴나 주택지의 원격화 등 생활자가 필요한 서비스 확보가 곤란하며 재해에 약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 개요의 기본 관점
- 이용자의 시각에서 참여형 사회구축
    - 이용자, 주민, NPO 등 다양한 참여추진
    -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추진
    - 다양한 관계자의 연계 및 협동 강화
  - 배리어 프리 시책의 종합화
    - 이용자의 행동에 대응하는 연속적인 배리어 프리 추진
    - 개별 운송서비스나 공공시설 등 대상 확충
    - 소프트 시책의 충실
    - 유연하거나 탄력적으로 추진

- 누구라도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교통
  - 교통 결절점에 있어서 편리성 향상이나 승계 원활화
  - 교통사업자와 지역주민과의 협동 촉진
  - 공공교통에 관한 정보제공의 필요성
  - 종합적인 시책추진
- 누구라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는 마을 만들기
  - 걸어서 생활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 시책추진
  - 마을 전체를 아우르는 시책추진
  - 마을의 재생, 재발견을 활용한 거주, 복지 등 생활기능 창출
  - 안심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
- 기술이나 방법에 의존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대응
  - 관광 등 비일상적인 행동을 대상으로 한 시책전개
  - 외국인 유입환경의 정비
  - IT를 활용한 정보제공
- 구체적인 시책
  - 유니버설 디자인의 사고방식에 의존한 다양한 관계자의 참여계획 구축
    - 주민, NPO 등이 계획 작성의 주체로 제안할 수 있는 계획을 설정함과 동시에 이러한 지역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담당하는 주민이나 NPO를 지원한다.
  - 유니버설 디자인의 사고방식에 의존한 평가, 정보공유 계획의 창설
    - 시설정비 등 사업이나 소프트 시책 실시에 의한 성과에 대해 다양한 관계자의 참여를 얻어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이후 사업이나 시책의 입안 또는 실시에 반영하는 계획을 세운다.
    - 시책효과에 대해 이용자 관점에서 만족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지표를 작성한다.

- 사례 : 하네다 공항의 국제선 여객터미널을 정비할 때, 정비나 운영사업자를 모집하면서 유니버설 디자인의 사고방식에 의거하여 제안을 요구하고 설계 단계에서는 이용자·관계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제안을 요구하여 운영에 반영시키고 있다. 또한 공용 개시 후에도 모니터링이나 고객만족도 등을 터미널 운영에 반영시키고 있다.
- 일체적, 종합적인 배리어 프리 시책의 추진
  - 여객시설만이 아닌 건축물도 포함하여 지속적인 배리어 프리 공간형성을 향한 국가의 기본방침을 책정한다.
  - 관계자 연계에 의한 일체적이고 연속적인 배리어 프리화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관리자간의 관리에 관한 협정이나 배리어 프리화 시설의 운영이나 관리를 행한 법인을 정비한다.
- 유니버설 디자인의 사고방식에 의존한 기준, 가이드라인의 책정
  - 각종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의 참여를 유도하고 유니버설의 견해에 의거한 사고의 전환을 행한다.
- 소프트 면에서의 시책 충실
  -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성과 능력을 발휘해서 자유롭게 기획하고 자기실현을 도모해서 사회실현에 이바지한다. 이를 위해, 이용자·학생·사업자 등 다양한 인재육성을 꾀함과 동시에 사람들의 의식계발을 촉진한다.
  - 역이나 주변지구에서 고령자·장애인·어린이 동반을 돕는 배리어 프리 자원봉사 모델사업을 실시하고 그 보급을 촉진해서 하드한 측면만이 아니라 사람에 의한 대응을 촉진한다.
  - 노선번호 방식에 의한 도로안내의 충실을 도모한다.
  - 복지시설에 의한 거주 지원 서비스와 연계해서 주거확보를 지원함과 동시에 이들의 이주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정보제공이나 상담시스템의 정비를 추진한다.
- 누구나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교통의 실현

- 이용자나 지역주민과 교통사업자와의 협력에 의한 편리성 향상을 향한 추진지원을 충실하게 도모한다.
  - 철도나 버스 등 터미널의 교통 결절점에 있어서 교통사업자나 시설관리자 등 관계자사이에 협의회를 만들어 통일되고 이해하기 쉬운 승강장 안내나 경로개선을 준수하는 구체적인 개선방안 추진을 지원한다.
  - 서로 다른 교통기관간 또는 교통사업자간에 있어서 할인운임 도입의 원활화나 정보안내 시스템 정비에 대한 지원확충을 촉진한다.
  - 지역실정에 입각한 새로운 형태의 운송서비스 제공을 촉진한다.
- 누구나 안전하고 살기 편안한 마을 만들기
- 마을 내에 주택, 생활관련 시설 등 집약적인 입지를 유도함과 동시에 쾌적한 보행 공간 등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새롭게 관련시책을 선진 사례 모델을 통해서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전개한다.
  - 도시계획에 있어서 유니버설 디자인 관점에 의거한 마을 만들기 이념, 방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정책 대응형 도시계획 운영지침을 책정한다.
  - 마을 만들기의 관점에서 도로·공원·민간부지 등 일체적이고 지속적인 정비에 대해 조성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 공간 정비를 추진한다.
  - 유니버설 디자인 관점에서 보도 개선·전주 없애기 등 공간 확보에 의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공간을 정비하며, 여객시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 등의 배리어 프리화를 종합적으로 진행한다.
  - 사례 :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중심시가지에서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토지소유자 등에 의한 설립된 SPC를 새로운 출자에 의해 지원하고 재개발 촉진지구를 정해서 도시계획 수단을 활용하고 마을 내에 의료나 복지시설 등 생활관련 시설입지를 집약적으로 유도한다.
- 다양한 사람, 활동에 부응한 유연한 대응
- 관광지에 적합한 기본 구상 작성을 촉진하고 관광지의 호텔 등 숙박시설에 대한 배리어 프리화를 추진한다.

- 외국인을 염두에 둔 안내 표식의 정비를 촉진하고, 공공교통기관에 있어서 외국어 등 정보제공 조치를 도입해서 지역관광에 정통한 통역가이드를 육성하고 확보하거나 자원봉사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외국인이 혼자서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한다.
- 이와 더불어 유니버설 디자인 관점에 의거한 관광지 만들기에 NPO의 활동이나 외국인·장애인·고령자가 참여할 수 있는 여행상품 조성을 지원하여 관광 진흥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 IT 등 신기술 활용

- 통신기기와 휴대형 정보단말기 등 기술을 활용한 ‘장소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이동경로·교통수단·목적지 등의 정보를 음성·문자·다양한 외국어로 제공함으로써 고령자·외국인·장애인이 자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전국 각지에서 계획을 추진한다.
- 누구라도 쉽고 효과적으로 지리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GIS기술을 활용한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니버설 관점에서 지도 가이드라인 작성을 추진한다.

○ 선도적인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전개

- 선도 사례를 육성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문제의 특징에 근거하여 프로젝트마다 이루어지는 효율적인 계획에 대해 효과적인 지원을 행하여 그 성과를 전국적으로 보급시킨다.
- 사례 : 누구라도 이용하기 쉬운 공항실현을 위해, 철도 공용 개시가 예정되어 있는 센다이(仙台)공항을 모델사례로 ‘유니버설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를 기반으로 이용자를 포함한 광범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철도와 공항터미널 사이에 지속적인 배리어 프리화를 추진하고, 정보제공 설비에 충실을 기하며, 요원교육시스템 확립 등 종합적인 계획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전국의 다른 공항에 보급하고 있다.

## 2)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 (1) 카나가와현(神奈縣)<sup>7)</sup>

#### □ 계획

- 神奈川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해서, 1976년부터 ‘등불운동’을 주민 모두가 나서서 전개하고 ‘등불기금’ 설치계획을 추진해 왔다.
- 또한, 다문화 공생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외국국적을 가진 주민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상담시스템의 충실을 도모하면서 남녀공동 참여사회 만들기를 향해 전국에서 앞장서서 ‘카나가와 여성센터’를 설치하는 등 유니버설 관점을 일부 선취해 왔다고 할 수 있다.
- ‘등불운동’의 진전과 궤를 같이해서 복지에 대한 견해도 시설복지에서 주택복지, 지역복지로 중점이 두어지게 되었다.
- 이러한 과정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살기 좋은 지역에서 안심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을 만들기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시설 등의 하드한 면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1995년 ‘神奈川현 복지거리 만들기 조례’가 제정되어 공공적 시설의 배리어 프리화가 종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神奈川현 복지거리 만들기 조례’에 관해서는 고령화로 인한 진행과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의식고양, 배리어 프리신법의 시행 등에 의거하여 동법의 위임조례 설정을 도모하면서 ‘마음의 배리어 프리’를 진행하기 위한 소프트 시책의 충실, 이용자 의견중시, 보다 폭넓은 대상자를 배려한 ‘컬러 배리어 프리’ 계획의 확충 등에 대해 현재 검토하고 있다.

#### □ 계획의 방향

- 이미 유니버설 디자인 관점을 넣은 시책이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을 둘러싼 사회 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있어 계획이 요구된다.

7) 神奈川縣ユニバーサルデザイン推進指針, 神奈川縣. 平成20年3月.

- 유니버설 디자인 관점을 새삼스럽게 모든 청이 공유해서 시책이나 사업 속에 한층 포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지침을 책정하게 되었다.
- 지침은 시책이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때, 유니버설 디자인의 관점을 취하기 위해 기본적인 방침과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 유니버설 디자인의 관점을 사회전체에 보급시키는 것은 현만이 아니라, 시정촌·사업자들,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이해와 주체적인 실천이 불가결하다.
- 우선 현에서부터 솔선해서 유니버설 디자인 추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주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침은 모두에게 적극적으로 공표하는 것과 더불어 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점검을 행하여 그 결과도 알릴 예정이다.

#### □ 기본방침

- 목표
  - 친절함과 동정심이 넘치는 현(縣)행정 추진
- 기본자세
  - 상대의 입장을 생각해서 현장 감각을 중시하는 자세
  - 이용자의 의견을 중시하는 자세
  - 끊이지 않는 점검과 새로운 생각을 중시하는 자세

#### □ 분야별 추진방향

- 관점 공유
  - 유니버설 디자인 관점에 대하여 청(庁) 내의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공유하도록 추진한다.
  - 교육현장에서 감수성 풍부한 아이들이 가치관의 다양성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에게 동정심이나 상호 존중하는 마음을 몸에 익히도록 하면서 유니버설 디자인 관점을 배울 기회를 마련함.
  - 사회전체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 개최, 홍보, 정보제공 등 계획을 행한다.

○ 마을 만들기

- 누구라도 살기 좋고 활동하기 쉬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각 시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이용하기 쉬운 공간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여러 사람이 방문하는 현(縣)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누구라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유니버설 디자인 관점을 사회전체에 보급시키기 위한 모델계획이 바람직하다.
- 누구라도 스스로 자유롭게 이동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쾌적하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도 상에 통행을 방해하는 장벽을 만들지 않고 모든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도로표시 설치를 추진한다.
- 고령자나 장애인들의 활동범위를 확대해서 누구라도 스스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를 촉진하기 위해, 안전하며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정비를 추진한다.
- 누구라도 생애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고령자나 장애인 등 사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활거점인 주택환경의 정비를 추진한다.
- 고령자, 장애인, 어린이 등 누구에 의해서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공원 정비를 추진함. 또한 상점가 계획을 지원해서 누구도 즐거운 쇼핑환경 정비를 추진한다.

○ 서비스·정보

- 주민 위주의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며 누구라도 안심하고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배려함. 또한 다양한 홍보매체에 의한 정보발신,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나 표시등으로 배려한 정보를 제공한다.
- 행정서비스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에 배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사업자를 지원한다.



## (2) 오키나와현(沖繩縣)<sup>8)</sup>

### □ 도입의 필요성

#### ○ 저출산·고령화 문제

- 오키나와현은 장수현으로 알려진 것처럼 고령자 비율이 높다. 따라서 배리어 프리 시책을 도입해서 고령자와 장애인의 편리성 향상을 배려한 ‘복지 만들기’를 추진해 왔다.
- 저출산 진행에 동반하여 장래 노동력 인구 감소에 의한 경제활력 감퇴 등이 염려되며, 고령자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주민이 사회의 담당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수반하는 것을 전제로 사회 환경 만들기가 필요하게 된다.

#### ○ 모두가 이용하기 쉬운 사회 환경

- 최근에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아동의 인권존중, 증가하는 외국인에 대한 배려 등을 고려할 때, 신체 능력의 차이만이 아닌 인간이 갖는 다양한 개인차에서 요구되는 것에 응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물리적 특성 외에 문화, 언어, 지역, 습관이 다르다. 따라서 어느 한 사람이 이용하기 쉽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이용하기 어렵다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 ○ 지역산업의 활성화

- 유니버설 디자인이 살기 쉬운 마을 만들기에 도움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모두를 대상으로 한 점포 만들기, 관광 만들기 등 고객만족도의 향상과 새로운 고객획득, 지역이미지 향상으로 이어진다.

### □ 지침 책정의 취지

- 현 내에 있는 다양한 지역과 분야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업 및 단체·시정촌·주민이 공통으로 이해와 목표를 갖고 연계해야 한다.
- 지침은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기본개념을 정리하고 시책추진에 있어

8) おきなわユニバーサルデザイン推進指針, 沖繩縣.

지향해야 할 목표와 완수해야 하거나 기대되는 역할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을 위한 힌트이며, 도구이므로 실제로 어떤 시책을 실시하여 바람직한 사회환경 만들기를 실현해야 하는가는 향후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 □ 기본방침

- 오키나와현에서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는 사회 환경 만들기 추진에 앞서 이용자의 요구에 응하는 마음가짐으로 법률과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용자의 시점을 중시한다.
- 실제 시책, 사업의 도입에서는 계획 및 실시에서의 평가, 개선이라고 하는 과정과 그 과정의 이용자 참여를 중요시한다.
- 요구에 응하기 위해 만드는 제품이 특별한 것이 아닌 가능한 모두에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 모두가 이용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목소리를 우선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은 유니버설 디자인 실현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이용자와 제작자간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탄생하는 것이다.
-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건물, 환경,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도는 아이디어만으로는 부족하고 과정을 중시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모든 분야에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이 필요하지만, 오키나와현에서는 다음 다섯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 모두를 위한 마을 만들기, 모두를 위한 제품 만들기, 모두를 위한 정보·서비스 만들기, 방문자를 위한 관광지 만들기, 유니버설 디자인 추진을 위한 상황 만들기이다.
- 유니버설 디자인 추진을 위한 4가지 키워드는 「단순성」, 「쾌적성」, 「안전성」, 「유연성」이다.

## □ 분야별 추진방향

### ○ 마을 만들기

#### ● 공공건축물 및 시설

- 현상 및 과제 : 현재 공공건축물은 하트빌딩법과 오키나와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등을 토대로 배리어 프리 관점에서 정비를 도입한다. 그리고 기획 및 설계 등 관계자가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않아 그 기준 달성이 목적화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으며, 이용자 요구 파악 및 요구에 응하는 의식이 불충분하다. 또한, 아직도 민간시설에 배리어 프리가 필요한 곳이 많다.
- 추진방향 : 기준 달성만이 아니라 이용자 요구에 응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설치자나 이용자 모두 유니버설 디자인을 이해하고 보다 좋은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정비지침을 작성한다. 그리고 점포나 민간 운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 신설될 경우는 설계 및 계획 단계에서, 기존 건물은 개축 시에 유니버설 도입을 검토 받는다.

#### ● 교통기관(도로 포함)

- 현상과 과제 : 운행 체계와 교통기관 상호간 제휴의 편리성에서 이용자 요구에 대한 파악이 불충분하며, 기존 시설을 활용한 공공교통체계의 재구축 요구된다. 시설과 차량 등 배리어 프리화도 진행되고 있지만, 심신에 병이나 장애가 없는 사람들의 이용만 상정하여 설계된 것도 존재한다. 도로는 정부, 현(県), 시정촌(市町村) 등 관리주체가 복수이므로 통일되지 않아 도입방법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도로표식에 시인성(視認性)이 낮아 이해하기 힘든 그림문자 등이 있다. 보도 폭이 좁고 보도와 차도 사이에 큰 계단이나 경사가 있어 걷기 어렵거나 휠체어가 다닐 수 없는 도로들이 존재한다.
- 추진방향 : 기존의 시설, 차량 등을 배리어 프리화 시키고 신규시설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며, 교통 배리어 프리법 기준달성보다 이용자의 요구에 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책을 도입한다. 도로의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은 각 관리주체가 제휴하여 이용의 편리성에 차이가 없게 한다. 시인

성이 높고 알기 쉬우며 친밀함을 갖고 있는 도로안내 표식 설정의 정보제공을 적극 시행한다.

● 주택

- 현상과 과제 : 건설에 앞서 관련 설계자와 시공자에게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이 보급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주택까지의 이동경로에 유니버설 도입이 불충분하다.
- 추진방향 : 설계 및 시행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시점에서는 개조하기 쉽고 골격과 내장·설비를 분리하여 내장과 설비 개수가 쉬운 주택도입을 검토한다.

○ 정보·서비스 만들기

● 정보

- 현상과 과제 : 정보입수 수단이 한정되어 있고 시각, 청각, 감각 등 복수의 지각으로는 입수가 불가능하며 정보내용을 알기 힘들고 새로운 분야(IT 기기)에 관해서는 주민 간에 정보격차가 존재한다.
- 추진방향 : 일방통행의 정보제공이 되지 않도록 수신자 입장에서 누구든지 알기 쉽고 얻기 쉬운 정보 발신방법을 검토한다. 인터넷 웹사이트를 누구나 열람하기 쉬운 구조나 디자인으로 구성한다.

● 서비스

- 현상과 과제 : 행정서비스는 민간에 비해 이용수속이 복잡하여 이해하기 힘들며, 부서에 따라 대응방법이 일치하지 않는 등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다.
- 추진방향 : 서비스 제공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작성하여 매뉴얼화 하는 등 누구든지 이용하기 쉽고 평등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비한다.

○ 관광지 만들기

- 현상과 과제 : 배리어 프리 관광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상 폭을 넓힐 필요가 있으며, 시설정비가 충분하지 않고, 정보항목에 따른 정보제공이 행정에 요구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정보발신이 불충분하며 모든 관광객

을 맞이하기 위한 환대도 불충분하다.

- 추진방향 : 배리어 프리 관광을 발전시켜 유니버설 디자인 매뉴얼 만들기를 도입하고 누구라도 방문하기 쉬운 관광지 시설정비를 추진한다. 접근장애 등 하드 면에서 문제해결이 곤란한 것은 개조 서비스 제공 등 소프트 면으로 대응을 검토한다.
- 상황 만들기 보급 활동
  - 현상과 과제 : 모든 분야에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이 충분히 침투해 있지 않다.
  - 추진방향 : 이용자에게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보급하고 현 단계에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이용하기 쉬운 것을 만들지 못할 경우에는 이용자 요구에 맞춰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현상을 설명한 후, 각 이용자가 이용하기 쉬운 상황을 유지하도록 상황 만들기를 도입한다.

### (3) 사가현(佐賀縣)<sup>9)</sup>

#### □ 기본 목표

- 오랜 역사와 풍요로운 자연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전통의 부가가치를 더하여 주민의 협동에 의한 3세대 누구라도 휴식을 느끼면서 밝고, 즐겁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한다.

#### □ 기본자세

- 유니버설 디자인을 목표로 배리어 프리화를 추진한다.
-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고 개선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
- 사용하기 쉬운 것에만 한정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개선을 도모하며 이상을 추구한다.
- 모든 이용자가 각각 갖고 있는 특성이나 차이를 초월하여 스스로 받아들이며 특별한 의식을 지닐 수 있도록 배려한다.

9) 佐賀ユニバーサルデザイン推進指針：三世代 みんなが安心して暮せるまち, 佐賀縣. 平成18年3月.

- 이용자인 주민과 CSO 등이 연계하고 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함.

□ 지침배경

- 저 출산 및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어린이를 기르기 쉽고 누구라도 이용하기 쉬운 환경 만들기가 요구되고 있다.
- 국제화 및 정보화의 진전에 의해서 인권을 존중하고 상호간의 문화나 관습을 이해하며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구축과 정보통신 기술의 진보에 의해 국제적 관점에서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회 환경 만들기가 필요하다.
-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혜택 받은 자연환경과 귀중한 문화유산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과 산업을 진흥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
- 지구환경을 소중하게 지키고 보호하여 후손들에게 계승하기 위해 매력적인 전원경관과 거리를 잘 보존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사가현(佐賀県)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상호간의 개성이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의식을 기르는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지역의 아이들은 지역에서 기를 수 있는 체제 만들거나 생애학습 환경을 충실하게 함으로서 인재를 육성한다.

□ 추진 중점사항

-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육성 및 유치
-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하는 시책
- 역사관을 중심으로 마을만들기 추진
- 삼림의 보존 및 활용과 有名海 재생
- 새로운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회실현
- 복지서비스나 환경비즈니스 등 신산업 창출 및 신분야 개척촉진
- 장애인 고용 촉진
- 고령자 취업 촉진

- 지역커뮤니티를 활용한 시책추진
- 먹거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책

#### □ 분야별 추진방향

- 마을 만들기
  - 현상과 과제 : 건축물이나 공원, 도로 등 공공사업 실시를 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잘 반영하지 않는 면이 있고, 그 정비에 있어서 주변도로와의 접근이나 통일성이 불충분하며, 관광시설이 모든 사람을 대응하는 것은 아니며, 충분한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안전한 보행거리가 확보되어 있지 않고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목적지 안내표지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 추진방향 :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정비에 있어서 계획단계에서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의견교환을 하여 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시설이 되도록 검토하고, 누구나 쉴 수 있는 공간이나 경로 도입을 추진하며 안내표식의 방법, 채색, 설치장소를 배려하여 정비하도록 노력한다.
- 건축물
  - 현상과 과제 : 많은 공공건물에서는 하트빌 법이나 佐賀県 복지마을만들기 조례에 의한 배리어 프리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유니버설 디자인 관점에서 누구라도 이용하기 쉬운 건축물 정비도 필요하다.
  - 추진방향 : 현에서 신축 또는 증개축을 하는 공공시설이나 공영주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용자의 의견이나 상담을 듣고 추진하며,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설치자나 시설 정비에 관련된 사업자등에 대하여 의식개발을 하도록 지도하고 조언하여 시설정비에 노력한다.
- 교통기관 및 시설
  - 현상과 과제 : 현내 교통기관이나 시설에 있어서 공공교통 기관을 이용하여 이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역, 버스 터미널의 높낮이 차이가 많고, 환승에 대한 배려가 충분하지 못하고 안내표시도 불충분하다.
  - 추진방향 : 여객시설에도 배리어 프리화의 촉진과 더불어 이동수단의 논스톱화를 포함한 정비를 추진하고 환승안내도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도로

- 현상과 과제 : 도로정비에 있어서 이용자와 충분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시가지 도로에 있어서 차도와 도보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보도의 장애물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는 위험한 장소도 있음. 또한 교차점과 횡단보도에서는 시각장애자나 휠체어 사용자 등 이용하는 사람의 요구와 다른 경우가 있다.
- 추진방향 : 관계기관·단체나 이용자의 의견 등을 파악해서 계획에 반영하고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쉽도록 추진한다. 그리고 교차점과 횡단보도에서는 이용자가 식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정보

- 현상과 과제 : 복수의 방법에 의한 행정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많은 정보 중에는 문자보다 문장위주로 되어 있어 이해하기 어렵다. 긴급시 시각내지 청각장애인들은 다양한 정보제공이 정확하게 제공받기가 쉽지 않고, 정보의 이용기회와 활용능력 면에서 격차가 있다.
- 추진방향 : 다양한 IT분야의 정보제공을 검토하며 재해나 사고 등 긴급한 정보나 의료, 보호와 관련한 정보제공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선진적 정보기반과 환경을 정비한다.

○ 서비스

- 현상과 과제 :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임산부 등을 동반한 사람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서비스의 절차도 분산되어 있어 불편하고 시설이용 시간이 획일적으로 짧아 이용자의 라이프스타일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추진방향 : 누구라도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자의 특성을 배려한 정보제공을 하며, 이벤트 개최를 포함해서 佐賀県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거리로 편안하게 나올 수 있도록 호스피탈리티 향상에 노력한다. 그리고 원스톱 창구로 시스템 정비를 추진한다.

○ 인재육성

- 현상과 과제 : 어린 시절부터 서로 개성이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의식



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유니버설 디자인을 배울 기회가 적고 지역에서 거리만들기 과제해결에 있어서 새로운 자원봉사 활동과 시민사회 조직의 기반이 충분하지 못하다.

- 추진방향 : 어린 시절부터 생애를 통해 학교, 지역, 직장 등 학습환경 만들기를 추진하며, 지역이나 직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추진하는 리더나 CSO를 비롯한 자원봉사자를 육성하고 홍보지나 홈페이지를 비롯한 각종 정보매체를 활용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보급을 촉진한다.

#### (4) 아오모리현(青森縣)<sup>10)</sup>

##### □ 기본이념

- 모든 사람, 생활자가 기회균등 내지 공정하게 생활목적을 자기실현을 하는 생활환경으로 접근할 수 있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니버설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 누구나 자유롭게 거리로 나가 정보를 얻고 서비스를 받게 되며,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참여하여 장애를 느끼지 않고 살고, 움직이고 즐기며 사회생활을 하는 유니버설 사회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 목표

- 안전하게 사람들이 접촉하는 거리가 문화를 개척하는 아오모리
-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보가 동등하고 정확하게 전해지는 아오모리
-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며 빈틈없이 서비스하는 아오모리
-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풍요롭고 친절한 아오모리

##### □ 기본자세

- 과정을 중요시 한다. 많은 관계자가 참여하고 동일한 목표를 향해 연계하면서 추진한다.

10) あおもりユニバーサルデザイン推進基本指針, 青森縣.

- 지역성을 중요시 한다. 국가가 유니버설 디자인의 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아오모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나 이용자가 주체가 되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속성을 중요시 한다. 보다 사용하기 쉬운 것은 완성품이 아니고 새로운 기술 개발에 의해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하도록 새로운 시점에서 평가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분야별 추진방향

- 안전하게 사람들이 접촉하는 거리가 문화를 개척하는 아오모리
  - 주택환경, 보행환경의 정비 등 추진
  - 적설한랭 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마을만들기 추진
-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보가 동등하고 정확하게 전해지는 아오모리
  - 알기 쉬운 정보제공
  - 정보제공 시스템 정비
-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며 빈틈없이 서비스하는 아오모리
  - 행정서비스 및 민간서비스 향상
-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풍요롭고 친절한 아오모리
  - 인재육성, 추진체제 정비, 체험활동 추진

(5) 오카야마현(岡山県)<sup>11)</sup>

□ 지침책정 취지

- 인간의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인간의 마음을 중요하게 하면서 발전이나 비약을 도모하는 ‘쾌적한 생활을 하는 오카야마’ 를 실현하고자 한다.
- 유니버설 디자인의 관점을 다양한 분야에서 받아들여 종합적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해 다양한 주체가 연계하면서 추진하도록 한다.

11) おかやまユニバーサルデザイン推進指針, 岡山縣. 平成16年3月.

- 항상 시책사업을 점검하고 개선을 도모하면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책을 구축한다.

#### □ 지침책정 배경

-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
- 인구감소 사회에 대한 대응
- 국제화에 대한 대응
- 지역산업의 활성화

#### □ 계획 방향

- 자신이 보기에 당연한 것이라도 모든 사람에 의해 당연한 것인가를 일상 생활 속에서 묻는 발상 전환의 자세가 필요하다.
-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 사업자, MPO 등 단체나 행정 이 각각의 역할을 완수하면서 함께 활동하는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 유니버설 디자인의 관점을 생활의 모든 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의 유형 또는 무형 자산 축적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 기본자세

- 커뮤니케이션을 중시
- 가능한 한 많은 이용자를 위한다는 점을 중시
-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매력 있는 디자인을 중시
- 지속적인 개선을 중시

#### □ 추진을 위한 5가지 관점

- 모든 사람이 사용하기 쉽고 편리한 것
  - 시설 내 설비는 조작성이 쉬운가, 시설 내 설비는 무리한 자세를 취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가, 각 방에의 출입은 자연스러운가, 엘리베이터나 주차장 등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가.

○ 모든 사람이 이해하기 쉽고 간단한 것

- 도로에서 건물입구까지 또는 입구에서 목적지까지 경로가 단순하고 이해할 수 있는가, 화장실이나 휴게실을 쉽게 찾을 수 있는가, 조작은 간단한가, 한 쪽 손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것

- 비탈길은 아무렇지 않게 설치되어 있는가, 소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나 벤치·휴게실 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것

- 주차장에서의 전망을 배려하고 부주의한 사람이나 돌출물에 충돌하는 것은 없는가, 건물에 인체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용되고 있지 않는가, 필요한 장소에 디자인이 배려된 난간 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재해 등 긴급을 예방한 안전대책이 충분한가.

○ 선택지(유연성)가 있는 것

- 다양한 이용자를 위해 의자·벤치·음료수대·전화 등이 시설 내에 복수로 설치되어 있는가, 화장실이나 소아용 변기가 준비되고 유아를 동반한 사람을 배려하고 있는가.

□ 분야별 추진방향

○ 마을 만들기

- 공공시설 및 건축물
  - 현상과 과제 : 누구라도 이용하기 쉬운 건축물로 되어 있지 않은 면이 있으며, 주변 도로와의 접근이나 통일성이 반드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
  - 추진방향 : 건축사 및 설계·시공자 등 건설관계자의 유니버설 ELK인에 대한 지식보급, 향상에 노력하며 가이드라인, 모델시설 정비의 검토도 필요하다.

- 교통기관 및 시설
  - 현상과 과제 : 역이나 버스 터미널에 높낮이가 심하고 버스, 전차로의 환승, 지하가 출입 등에 모든 사람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 확보 또는 안내표지가 불충분하다.
  - 추진방향 : 여객시설 개선에 있어서 유니버설 디자인 관점을 도입해서 이용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며 교통사업자를 대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의식만들기를 노력한다.
- 도로 (도보 포함)
  - 현상과 과제 : 이용자와 충분한 의견교환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거리에는 아직 차도와 도보의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장애물 제거의 필요성을 느끼는 장소나 도로 표식 등이 충분하지 않다.
  - 추진방향 : 도로관리자가 유니버설 디자인의 관점을 이해하면서 이용자의 의견을 듣고 각 도로의 이용 상황을 살피면서 도로정비를 검토한다.
- 주거
  - 현상과 과제 : 유니버설 디자인의 관점이 반영된 주택의 필요성이 주민에게 충분히 보급되지 않고 있으며 주택개발 관계자도 이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다.
  - 추진방향 :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정보제공에 노력함과 동시에 주택건설 관계자, 주민의 의식향상에 노력한다.
- 상점가 등
  - 현상과 과제 : 도로 폭이 충분하지 않아 보행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휴식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어있지 않고, 상점 영업시간이 짧아서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서비스 제공에 의해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욕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 추진방향 : 상점가에서의 원활한 이동 확보나 쾌적한 상점공간 형성에 하드한 측면과 소프트한 측면의 검토가 필요하다.

- 공원, 관광지 등

- 현상과 과제 : 공원의 화장실이나 벤치 등 시설 관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면이 있고, 관광지에서는 처음 방문한 사람에 의해 안내 표식 등이 불충분한 경우도 있다.
- 추진방향 : 시설정비 관계자, 관광산업 관계자 등에 대한 유니버설 디자인 의 의식보급에 노력하며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체적이고 정신 적인 피로를 씻을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정보 및 서비스

- 정보

- 현상과 과제 : 행정정보는 정보제공이 복수로 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기 어렵고 특히, 긴급 시 장애인 이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받기 어렵다.
- 추진방향 : 정보전달 수단에 유니버설 디자인의 관점 도입을 추진하기 위 해 현이 솔선해서 추진하고 보급하며, IT활용에 있어서도 하드한 측면과 소프트한 측면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서비스

- 현상과 과제 : 서비스를 받는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유연한 대응이 요구 되지만, 이용절차가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렵고 창구도 분산되어 있어 불편 하다.
- 추진방향 : 서비스 이용자의 특성을 배려한 대응방법이나 절차를 간소화 하고 창구도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사회참여

- 현상과 과제 : 장애인, 고령자, 여성 등이 일하는 취로환경을 정비하고 참여 하기 쉬운 이벤트를 개최하여 모든 사람의 행동범위가 폭넓어지거나 외국 인이 살기 좋은 환경 정비도 필요하다.
- 추진방향 :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의 사회참여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동

수단, 시설, 설비, 기계, 도구, 인적 지원 등의 소프트한 측면에서 하드한 측면에 걸쳐 배려가 필요하다.

## (6) 야마나시현(山梨縣)<sup>12)</sup>

### □ 배경

- 출생률이 낮아져 인구감소가 나타나거나 신체적 능력이 저하되는 사람의 상승으로 저 출산 및 고령화의 진전
- 장애인이든 고령자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보통 생활을 하기위해 함께 지역에서 살아가는 정상화(normalization)의 진전
- 국적이나 민족이 다른 사람이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며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국제화의 진전
- 인터넷 보급, 전자메일 활용, 휴대전화 같은 정보 단말보급 등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의한 정보화의 진전
- 남녀 상호간 인권을 존중하고 책임을 분담하며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남녀공동 참여의 진전
- 다양하고 특색 있는 지역산업의 진흥
- 자원을 유용하게 활용하여 환경을 지키고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다음 세대로 연계하는 장기적 순환형 사회 형성

### □ 목적

- 살기 편안한 일본의 야마나시(山梨) 만들기 실현을 향해 주민, 현, 시정촌, 사업자 등이 연계하고 협동해서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마을 만들기를 추진한다.

### □ 기본자세

- 과정의 중시

12) やまなしユニバーサルデザイン：暮らしやすき日本の山梨づくりをめざして，山梨縣，平成20年3月.

-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만드는 쪽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좋은 것이 아니고 실제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사용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안전한가? 라는 관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때,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고 우수한 발상이나 정보를 공유해서 응용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 지속적인 추진

- 유니버설 디자인의 추진은 한번 결정하면 그것으로 좋은 것이 아니며 많은 사람의 요망을 피드백할 수 있도록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생활스타일이나 가치관의 변화 속에서 이에 부응한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용자의 참여

- 생활하기 좋은 생활스타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나 생활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는 것 즉, 많은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 지역특성의 관점

- 주위가 산과 삼림으로 둘러싸인 지리적 특성을 이용하고 자동차 보유율이 높아 차를 이용할 기회가 많은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 특징이 있어 이와 관련한 혜택 받은 관광자원 및 중 산간 지역과 도시기능이 집중하는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 분야별 추진방향

○ 마을 만들기

- 새로운 디자인이 있는 시설이나 도로에 유니버설 관점을 반영하고 기존 시설이나 도로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해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의 불편함도 있으므로 시설설비를 사용하기 쉬우면서 누구라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서비스 및 정보 제공

- 교통수단의 발달이나 정보통신 기술의 진전, 사회참여 의식의 고양 등으로 사람들의 교류가 활발해 지면서 이용자 관점에서의 서비스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화장실 장소나 시설 및 설비의 사용방법에 대해 도면·자막·음성 등을 상황에 맞추어 이용하고 연령·성별·지역·언어 등에 의해 곤란함을 느끼지 않게 하는 연구가 중요하다.

○ 인재육성

- 유니버설 디자인이 폭넓어지기 위해서는 그 관점을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의 입장에서 서서 생각하는 방법이나 배려에 대해서 가정·학교·지역사회 등에서 함께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7) 후쿠시마현(福島縣 : 공공시설을 중심으로)<sup>13)</sup>**

□ 기본이념

○ 함께 만드는 디자인

- 시설은 이용자와 함께 육성되는 것이므로 각 단계마다 가능한 한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함께 유지하는 디자인

- 획일적인 디자인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지역 사람들에게 오래 사랑받는 매력 있는 디자인이어야 하며 지구환경을 지키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디자인이 필요하다.

○ 마음에 닿는 디자인

- 만드는 사람의 마음, 이용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의 마음이 담긴 우수한 디자인이 필요하다.

13) ふくしま公共施設等ユニバーサルデザイン指針, 福島縣. 平成19年4月.

- 티가 나지 않는 디자인
  -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인권 쫓증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장애를 불러 일으키지 않는 디자인이 필요하다.
- 계속되는 디자인
  - 모든 사람의 욕구를 만족시켜 완성하는 것은 불가능 하지만, 가능한 한 창의 연구에 끝나지 않고 시행착오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이용자의 합의형성을 도모하여 개선을 행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 기본방침

- 모든 사람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 모든 사람이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 티가 나지 않는 아름다운 시설
- 어떤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설

□ 시설 조성

- 기본 구상(계획)
  - 요구되는 기능이나 성능을 파악, 검토 개시 시기, 의견수집 계획, 지역이나 부지선정
- 설계자의 선정
  - 시설불량은 설계자의 능력이나 경험에 크게 좌우되므로 설계자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한 창조력이나 기술력, 경험이나 지식이 요구된다. 따라서 다양한 각도에서 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설계
  - 기본 구상 설계, 구체적인 설계
- 시공

-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시설계획을 이용자 입장에서 확인하고 설계단계에서 상정할 수 없었던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 시설평가

- 이용자나 관리자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충분히 기능을 발휘해서 의도한대로 이용가능한가에 대해 시설의 진가를 평가한다. 이를 위해 일정 기간이 경과한 단계에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 관리 및 개수

- 시설의 기능이나 성능을 적정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부터 외관을 아름답게 하고 사고를 예방하거나 예측함과 동시에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효율 등도 폭넓은 관점에서 행한다.
- 구조나 공간 등 제약이 있으므로 전부를 만족시키는 것은 곤란하지만, 현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협력을 구하고 관리자가 의사체험을 행하여 문제점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기존시설을 개수하는 경우 전체 디자인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 데이터 축적

- 워크숍 등에서 얻은 의견이나 앙케이트 조사 결과, 설계 데이터나 시설 운용에 관한 데이터 등을 축적해서 정리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시설이나 기존 시설의 개수에 활용한다.

□ 이용자의 참여와 시설평가

○ 이용자 참여에 대한 견해

- 각 단계마다 많은 이용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며, 이용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 참여방법

- 정보 제공(앙케트 조사협력 등), 이용자와의 대화(아이디어 제안, 설명회 참여, 워크숍 참여 등), 이용자와의 협력에 의한 시설 만들기(공공공간의 녹화나 청소 참여), 이용자의 의견반영

- 참여방법의 검토
  - 이용자 참여의 단계나 이용자의 관심에 따라 참여방법은 다름. 다만, 참여 방법은 목적, 시기, 대상자, 반영방법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함.
- 시설평가
  - 시설 만들기 과정 평가 및 완성된 시설 평가

**(8) 하마마쯔시(浜松市 :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sup>14)</sup>**

**□ 지침목적**

- 유니버설 디자인의 환경을 정비하여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많은 공공건축물을 누구라도 안심하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 지침특색**

- 시설 상황에 부응한 실효성 있는 지침
  - 개수에 대한 중점사항, 대응이 곤란한 경우 잠정적 조치를 나타내고, 시대 변화에 맞춘 사고전환을 행한다.
- 이용자의 특성에 부응한 지침
  - 이용자의 특성에 잘 배려할 수 있고, 시설의 이용 목적에 부응할 수 있는 중점사항을 나타낸다.
- 시민이 이용하고 싶어지는 시설 만들기를 위한 지침
  - 소프트한 측면에서 배려할 수 있는 중점사항을 나타낸다.
- 시민에 의해 이해하기 쉬운 지침
  - 시민이 강하게 바라고 있는 것을 받아들인다.

14) 浜松市公共建築物ユニバーサルデザイン指針, 浜松市.

## □ 분야별 지침

### ○ 이동공간

- 건물 내부와 외부에 있는 수직 및 수평이동에 있어서 안전하고 용이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단차를 없애고 경사로를 완화하여 해당시설까지 안전한 이동통로를 확보한다.
- 항목 : 현관까지의 경로, 주차장, 현관, 복도, 계단, 에레베이터, 출입구 등

### ○ 생활공간

- 생활행위를 하는 시설에 배치되어 대부분 있는 공간과 특정 시설에 필요하여 배치된 공간에서 누구라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적으로 사용하기 쉬운 기능을 보유하도록 설치한다.
- 항목 : 화장실, 세면대, 다목적 화장실, 창구, 욕실 · 샤워실 · 탈의실, 객석 · 관람석 · 무대, 숙박실 등

### ○ 정보

- 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색채, 기호, 문자 서체 및 표기 언어 조정, 레이아웃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이해하기 쉬운 설치방법이나 표시내용을 나타낸다.
- 항목 : 시각정보, 청각정보, 음성정보, 인적 대응 등

### ○ 공공설비

- 시설 내에 공통으로 이용하는 설비는 조작이 간단하고 누구라도 사용하기 쉽도록 높이, 형태, 재질, 안내, 조작방법 등을 고려해서 설치한다.
- 항목 : 난간, 가구, 스위치, 콘센트 등

### ○ 피난

- 피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동선계획을 이해하기 쉽게 설정하고 여유 있는 공간을 확보하며 피난경로에는 단차를 설치하지 않는다.
- 항목 : 비상용 경보장치, 비상연락장치, 피난유도장치, 피난경로, 일시적 대기 공간 등

### 3) 지침 설정을 위한 시사점

#### (1) 지침 배경

-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장애인·노년층·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 보호정책을 초월하여 앞으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실현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 느끼지 못한 인간중심의 관점에서 새로운 평생 디자인을 강조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 배리어 프리 정책에서 처음부터 단차를 고려하지 않는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으로의 전환을 神奈川県에서 적절하게 표현하였는데,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sup>15)</sup>



(배리어 프리 이전단계)      (배리어 프리단계)      (유니버설디자인인단계)

<그림 Ⅲ-1> 배리어 프리 정책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으로의 전환단계

#### (2) 지침 취지

- 지침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환경을 효과적으로 정비하여 모든 시민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하며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15) 神奈川県ユニバーサルデザイン推進指針, 神奈川県. 平成20年3月.

### (3) 지침 관점

#### 수용가능성

- 누구나 평등하게 접근이 가능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이해가능성

- 누구나 적절한 이용방법을 알기 쉽게 인식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안전성

- 누구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실수나 위기 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 지역성

- 지역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 역사나 주변 환경에 어울리도록 조성해야 한다.

#### 지속성

-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변화에 부응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후속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잘 보전해야 한다.

### (4) 분야별 추진방향

#### 마을 만들기

- 지역에 있는 건축물, 공공시설, 교통기관, 도로, 주거, 상점, 공원 등을 누구나 공평하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점검한다.

#### 정보 및 서비스

- 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식별하기 쉬운 문자나 색채 등을 조정하여 누구나 간단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한다.

□ **인재양성과 사회참여**

- 유니버설 디자인 보급을 위해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도자와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에 인재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에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국내 사례**

**1)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1) 대전광역시**

□ 대전시는 사회적 약자가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

- 2008년 4월 22일에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도시 구조물, 시설물 등을 구축하였고 누구나 편하게 사용하고 활동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갖춘 도시를 조성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였다.

□ 이에 따라 건축물, 도로, 공원, 공공교통시설 등 모든 생활시설의 장애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각종 시설물을 설치할 때 구상·설계 단계부터 이런 개념을 적용하고 연차별로 로드맵을 세웠다.

- 2008년도 1단계로 건축물, 도로, 공원, 공공교통시설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관련 지침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고 1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현재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시행하고 있는 ‘BF 인증(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를 활용하여 10월 중에 대전시 청사를 1등급 인증 건축물로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구현을 위해 시범 추진한다.
  - 이를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팀을 통해 3차례 예비심사를 거쳐 장애인이나 노약자, 유아, 외국인 등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주차장, 경사로, 접근로, 미끄럼 방지 작업 등 모두 18개 항목에 대해 시설 준비를 완료한다.

- 시 청사가 BF 인증을 받는 대로 자치단체 공공 건축물인 서구청사와 내년 전국체전에 대비해 증개축 중인 한밭종합운동장 및 수영장과 새 건축물이나 도로, 공원, 공공교통시설에 대해서도 BF 인증을 추진하기로 할 예정이다.
- 2단계로 2009년 5월께 유동인구와 상징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 10만㎡이상 구역에 유니버설 디자인 거리를 시범으로 조성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를 확산하기로 한다.
- 2010년부터 3단계로 민간시설분야로 확대하면서 자율정비를 위한 협약을 추진해 건축물과 보행접근로 등에서 인증 제도를 적용하기로 한다. 특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처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규모 민간건축의 인증 적용을 유도하는 한편, 도로와 공원을 주 대상으로 2차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 사례 : 공중전화 부스의 턱을 없애면 장애에 상관없이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아래 사진을 보면, 왼쪽은 턱이 있어 휠체어 이용자의 진입이 어렵고, 오른쪽은 유니버설 디자인개념을 도입해 턱이 없다.



<전원부스 단차제거의 예>

<자료> 한겨레(2008. 4. 22), 대전시 제공.

- 대전시는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구상을 유성구 학하지구 내 공공시설과 화산천, 수통골, 빈계산, 복용공원 등이 어우러진 ‘보행자 중심의 무장애 거리’와 ‘테마(자연과 사람)가 있는 거리’를 조성한다.<sup>16)</sup>
- 무장애 거리의 경우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로, 교량, 공원 등에 험프(Hump)형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보도경사면을 1% 이내로 조정해 걷기 편한 도로로 조성할 예정이다.
- 도로변 가로수 식재, 가로 벤치 설치, 교통섬 내 나무식재 등을 통해 봄 꽃길, 여름 그늘길, 가을 단풍길, 겨울 바람길 등 나무와 물과 바람이 있는 ‘테마가 있는 산책코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 신개발지역인 학하지구의 가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2008년 9월에 수립, 10월까지 아이디어를 모아 올해 말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 (2) 대구광역시

- 대구지역은 현재, 지역시설에 산재한 배리어 프리 문제점을 파악하는 실정에 있다.<sup>17)</sup>
- 보도 및 차도
  - 보도와 차도의 분리가 불충분 보도가 좁다.
  - 횡단보도 통과시 자동차의 정지선 불이행.
  - 높낮이에 의해 넘어지기 쉽고 단차로 인하여 통행이 불편하다.
  - 포장이 미끄러지기 쉽고 보도포장의 마감으로 인한 약간의 높낮이가 존재한다.
  - 보도에 주차된 차들로 인하여 보행 공간 확보가 어렵고, 간판이나 상품진열로 인해 보행 공간 확보가 어렵다.
  - 시각장애자용 유도블록 설치가 갖추어 있지 않다.
  - 휴식시설이 야간에는 어둡다.

16) 조선일보, 2008. 04. 29.

17) 최동식, 건강도시 대구의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사회기반정비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연구, 대구경북연구원, 2007.



<사례1 : 단차로 인한 불편>

<사례2 : 보도주차에 의한 불편>

- 보도의 높낮이가 있고 배수구의 위험성, 입간판이나 표식이 방치되고 쓰레기 등이 장애가 되고 있어 통행에 어려움이 있다.
  - 교차로에 신호기가 없고 햇빛에 의해 신호기의 판별이 어렵다.
  - 신호의 음성정보 제공이 없고, 횡단보도 통과 시간이 짧다.
  - 휠체어 이용자에 있어 교차점의 단차로 인해 활동에 지장과 신호버튼의 설치가 필요하다.
  - 버스승강장에서 버스타기가 원활하지 않고 매표소 이용이 불편하다.
- 목적건물 접근
- 주출입구 부근의 단차가 존재하여 상하이동에 불편을 느낀다.
  - 시각장애자용 유도블록의 미설치로 인해 통행에 불편하다.
  - 배수구의 위험성이나 난간의 미설치로 인해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이용 불편이 확인된다.
  - 장애인용 주차장이 확보되더라도 목적 건물로의 이동에 있어 자동차의 위험에 노출된 경우도 많다.
- 안내표식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장치나 점자표시가 없어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한다.



<사례3 : 점자 표시 미비>

<사례4 : 유도 블록 미비>

**(3) 경상북도<sup>18)</sup>**

(1) 추진현황

- 경상북도 장애인 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으며 편의증진 국가 종합 5개년 계획의 취지에 따라서 제1차 편의시설 확충 5개년 계획(2000~2004)을 추진했고 제2차 경상북도 편의시설 확충 5개년 계획(2005~2009)을 수립하여 확충해 가고 있다.
- 추진과제는 공공시설 접근성 제고, 주거 및 생활공간 편의시설 확충, 교통 환경 개선, 사회인식 개선 및 교육 강화, 실태점검 및 평가에 두었다.
- 세부과제는 공공시설의 편의시설 설치내실화, 각 주관기관별 소관시설의 편의시설 지도감독, 수화통역 등 인적 서비스 제공, 근린 생활시설의 편의시설 설치확대, 주거공간의 편의시설 설치 확대, 대중교통 접근성 제고, 특별 교통수단 제공, 보행환경 개선,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 강화, 당사자 참여 편의시설 평가실시 등을 제시하였다.

18) 엄기복, 경상북도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대구경북연구원, 2007.

□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행정기관, 공중이용시설, 신개축건물의 편의시설 확충과 의견수렴 창구 설치 및 지도점검 강화 등의 공공건물 및 주요 공공시설의 편의시설 확충과 지역 내 편의시설 안내지도 등 제작배포를 통한 공공시설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다.
- 둘째, 환경개선을 위한 매뉴얼 보급과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확충, 장애인 주택 개조비용 보조 등을 통한 주거 및 생활공간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 셋째,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보행환경 개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 장애인등을 위한 특별운송 서비스의 실시 등을 통한 교통 환경 개선을 하고 있다.
- 넷째, 편의시설에 대한교육·홍보강화, 편의증진 요원의 확충, 편의시설 확충 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교육 등을 통한 사회인식개선 및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 다섯째, 주기적인 설치 실태조사 및 점검, 편의시설 설치실태 평가조사 등을 통한 실태점검 및 평가를 하고 있다.
- 이 계획은 현재 추진 중이고 2009년에 도로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의 편의시설 설치실태 및 정비 100% 달성을 목표로 하여 편의 시설을 증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달성수준에 대한 파악이 어렵고 추진기구는 각 시군구가 맡고 있어 23개 군의 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 앞에서 언급한 목표가 달성되어도 경북과 같은 도시형·농촌형·도농복합형 지역이 섞여 있는 경북의 경우, 편의시설 확충 계획 추진만으로는 도민이 생활하고 있는 근린 생활권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경상북도는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의 문화공연 관람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하여 실시하고, 2007년 9월에 실시한 건설교통부 주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의시범지역 신청을 고려 중이다.

□ 분야별 추진실적

- 첫째, 생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건축물 등의 편의시설 확충, 장애인주택 개조 비용보조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였는데, 전체 대상 시설은 75.8%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청사, 횡단보도, 장애인복지시설, 종합병원 등 정비대상 시설은 2001년 말에 98.6%를 나타냄. 주거환경 개선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주택개조,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 확대, 건축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 둘째, 교통 환경 개선은 대중교통이용 편의 증진, 장애인 특별운송 서비스 실시,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관리 철저, 제도개선의 실적을 올린다.
- 셋째, 교육 및 홍보강화, 편의증진 요원 확충, 편의시설 지원센터 설치, 제도개선의 실적을 올린다.

□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시설 예시

-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교정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이 관련된다.
  - 각 시설에는 접근로, 주차구역, 출입구, 복도, 화장실, 욕실, 샤워실, 탈의실, 시청각장애인 안내유도설비, 장애인 피난경보설비, 객실 또는 침실, 관람석, 열람석, 접수대,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휴게시설 등이 관련된다.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이 있고 상기 공중이용시설과 같은 다양한 부대시설과 복지시설 등이 관련된다.
- 교통수단
  - 택시, 버스, 철도 등 교통수단이 있고 각 시설 및 대기시설에는 안내방송, 전자문자 안내판, 행선지표시, 휠체어 승강설비, 교통약자용 공간 및 도구 등이 관련된다.



〈사례5 : 경상북도의 저상버스〉

○ 여객시설

- 여객터미널, 버스정류장 등이 있으며, 각 시설에는 보행접근로 주출입구, 전용주차구역, 통로경사로,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계단, 화장실, 안내소, 매표소, 개찰구 등의 시설등이 관련된다.

○ 보행환경

- 보도, 지하도 및 육교, 횡단시설, 교통신호기, 자동차진입 억제용, 휴게실, 지하도 등이 있고 각 시설에는 보도의 유효 폭, 포장, 기울기, 차도분리 및 보행안전지대, 턱낮추기, 점자 블록,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음향신호기, 휴게 공간, 표지판 등이 관련된다.



〈사례6 : 차도와 보도 턱낮추기〉



〈사례7 : 차도와 보도분리〉

○ 주거공간

- 부엌, 화장실, 침실, 거실, 목욕탕, 유아방, 서재, 현관, 차고 등 관련시설에 대하여 주거에 대한 기능성, 안정성, 청결성, 독립성, 가족상호성, 편리성, 관리성, 쾌적성 등을 고려해서 각 공간을 검토한다.

○ 생활주변시설

- 지역 내 슈퍼마켓, 이용실, 미용실, 시장, 공원, 목욕탕, 병원, 주민자치센터 등 서비스 시설에 대한 진입로와 이동공간과 관련되며, 약자의 생활주변 시설 이용이 원활할 수 있도록 접근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사례8 : 슈퍼마켓 진입로>



<사례9 : 이동로 휴식공간>

**(4)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예산·홍성)<sup>19)</sup>**

□ 충남도는 예산·홍성의 도청 이전 신도시를 장애인·노약자 등 시민 모두가 일상생활에 전혀 장애를 느끼지 않는 ‘무장애 도시(일명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 무장애 도시의 기본방향은 누구나 불편 없이 걸을 수 있는 보행 전용공간 마련,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시설 설치, 지역특성에 맞는 입체 횡단 시설 도입, 공원 및 건축물 접근시설 확충 등이다.

- 이에 따라 도로에 설치되는 보도를 보행안전구역(Barrier free Zone)과 장애물구역으로 구분한다. ‘보행안전구역’은 보행자 전용 지역으로 만들고, ‘장애물구역’으로 구분한다.

19) 한겨레, 2008. 9. 29.



애물 구역’에는 가로수, 가로등, 쓰레기통, 변전기 등을 설치해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로 한다. 교차로에는 음성신호기와 점자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횡단보도 내에 조명시설을 설치해 장애인들 보행에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 ‘ 시내버스와 택시 승강장 ’에는 경사로를 설치해 휠체어와 보행 노약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승강장 내부에 교통정보시스템 등을 도입해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한다.
- ‘ 횡단보도시설 ’은 지역특성에 맞는 입체시설을 도입하기로 했다. 즉, 주거지역, 학교·공원주변에는 도로와 보도의 높이를 일치시키는 방식인 ‘ 험프형이나 고원식 ’으로 설치해 휠체어 사용자 및 노약자가 우선 이용하도록 해 보행자 도로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 공원 및 건축물 ’은 접근이 용이하도록 각종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휠체어 이용을 위한 도로 폭원 확보, 음수대 높이 조정, 경사로 기울기 조정, 장애인 및 여성전용 주차구역 등이 우선 조성되며 건축물은 주출입구와 출입문은 단차 없이 접근 가능하도록 의무화된다.

## (5) 광명시<sup>20)</sup>

- 대한주택공사는 경기 광명시 KTX 광명역세권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조경설계를 할 예정이며, 조경설계 추진 계획으로 만들어질 각 지구의 공원 및 녹지는 각 도시의 생태허브로 조성될 예정이다.
- 광명역세권 조경설계는 ‘ 모두가 편리한 환경, 모두가 참여하는 환경, 모두가 즐거운 환경 ’을 만들기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한 장애인에게도 불편함이 없는 무장애 공간(Barrier-Free)으로 조성키로 한다.
- 광명역세권의 경우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기존의 주거단지와의 연계성뿐만 아니라 주변의 공공시설과 조화를 이루도록 KTX 역사 전면을 ‘ 테마형 공원 ’ (조감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무장애 공간 500㎡을 확보해 휴게공간 또는 놀이공간을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20) 파이낸셜 뉴스, 2008. 08. 05.



<사례10 : 광명역세권의 ‘테마형 공원’ (조감도)>

**(6) 화성시<sup>21)</sup>**

- 경기 화성시가 앞으로 모든 공공시설에 ‘유니버설 디자인’ 을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를 추진하고 있어 노약자,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건물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앞으로 모든 시민들이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관련 조례를 추진한다.
  - (가칭) ‘화성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추진’ 조례를 현재 입법예고를 끝내고 시 의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 도입대상 범위는 공공건축물, 주차장, 교통 및 교통시설, 공원 등이 포함돼 있고 일부는 복지와 관련된 민간시설물이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려고 할 경우, 시비 투입이 가능하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 화성시에서는 앞으로 관내 모든 공원에도 도시디자인을 적용하기로 하고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열기로 함. 화성시는 단순 인구만 늘어나는 도시가 아닌 녹색의 공원에서 풍요를 만끽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근린공원 시설물’ 이라는 주제로 도시디자인을 공모하기로 한다.

21) 뉴시스, 2008. 08. 22.

- 화성시는 현재 전국에서 전입인구가 가장 많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조례가 제정되면 잇따라 건설되는 종합경기타운, 국민체육센터, 외국인근로센터 등 공공시설물과 건물에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될 예정이다.

## (7) 서울 영등포구<sup>22)</sup>

- 영등포구가 당산3가와 여의나루길 2곳에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디자인 거리를 조성한다.
- 영등포구는 여의동 여의나루길 ‘국제금융디자인거리’와 당산동3가 ‘당산로 공공디자인거리’ 등 디자인 거리 2곳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한다.
- 구는 노인인구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보행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이지만, 현실은 지하철 통풍구부터 보도블록, 가로수, 심지어 불법주·정차 등 고치고 손봐야 할 부분이 많다. 영등포구는 우선 디자인거리로 조성되는 구간의 보도 높이를 10cm 이하로 낮추기로 했으며, 인도의 경사도도 현재 4% 이하에서 2% 이하로 낮추고,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에는 경사형 이음돌을 설치하여 휠체어 사용자와 고령자, 어린아이들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 구에서는 보도 포장재질을 디자인 중심의 재료 대신 고무, 목재 등을 사용해 넘어져도 충격이 덜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도에 설치된 가스등과 휴지통, 벤치 등도 한쪽으로 몰아 충돌을 최대한 피할 수 있게 고친다. CCTV는 물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지도,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 도우미 등 첨단시설들도 거리 곳곳에 잇따라 들어설 전망이다.

22) 서울신문, 2008. 05. 28.

## 2) 기타 단체의 사례

### (1)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sup>23)</sup>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장애인들이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정비를 마치고 여름휴가가 시작되는 2008년 8월부터 ‘장애인 산림휴양 지원서비스’ 를 실시한다.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우선 대관령, 신불산, 오서산 등 전국 6개 국유자연휴양림에 ‘장애인 우선예약 객실’ 을 별도로 뒤 매월 4일부터 5일간(공휴일 제외)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우선 예약을 받기로 했다.
- 장애인의 예약편의를 위해 일반인과 달리 전화로 예약접수를 받는 ‘장애인 우선예약 객실’은 진입로 경사도가 정비됐으며, 객실 현관 턱이 제거됐다. 또 진입로 점자블럭, 장애인화장실, 장애인 전용주차장 등을 구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법을 적용한 객실로 단장됐다.



<사례11 : 장애인 편의시설 갖춘 자연휴양림>

- 유명산과 청태산 자연휴양림 2개소에는 장애인들이 휠체어로 이동 가능한 숲체험 데크로드를 설치해 장애인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산림욕과 숲체험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한다.

23) 뉴시스, 2008. 07. 03.

## (2) 함께하는 UD실천연대<sup>24)</sup>

- 한국장애인 인권포럼, 한국노년 유권자연맹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함께하는 UD실천연대’는 이색적인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보급운동을 벌여, 성과를 거두고 있다.
- 한국녹색문화재단이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청태산에 건설 중인 ‘데크로드’는 휠체어 장애인이나 노인, 어린이도 어려움 없이 등산을 즐길 수 있다.
- 이들은 최근 유니버설 디자인 요소를 가미한 시설물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마크’를 주도록 건의해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 마크를 받는 건물주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이들은 청계천 복원 단계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에게는 ‘차별천’이라며, 서울시와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4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 소송은 우리 사회 전반에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확산시키는 주요한 계기로 삼고 있다.
- 이와 함께 서울시에 각종 도시계획 때 유니버설 디자인을 고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장애인이나 노인, 관련 전문가 등이 일정비율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다.
- ‘장애물 없는 점포 찾기운동’도 벌이고 있는데, 이 운동은 전국의 상가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어진 점포를 찾아 시상하는 것이다.
- 유니버설 디자인 보급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한국녹색문화재단은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삼교리 청태산에 나무판자를 1km 구간에 걸쳐 깎아 등산로 일명 ‘데크로드(deck road)’를 건설하고 있다. 이는 휠체어 장애인이나 노인, 어린이도 힘들이지 않고 등산을 즐길 수 있어 유니버설 디자인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24) 세계일보, 2007. 06 .08.



<사례12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청태산의 데크로드>

### 3) 지침 설정을 위한 시사점

- 대전시는 2008년 이후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추진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고, 대구시는 배리어 프리에 입각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으며, 경상북도는 이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기타 도시와 단체에서도 서서히 유니버설 디자인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 상기 언급한 지역이나 단체들의 유니버설 디자인을 지침관점에서 보면, 수용가능성, 이해가능성, 안전성의 측면에서 검토되고 있으며 가능한 한 친환경적이고 배리어 프리에 기반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 연구대상은 주로 지역에 있는 건축물, 공공시설, 교통기관, 도로, 주거, 상점, 공원, 안내표지 등을 중심으로 누구나 공평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점검하는데 비중을 두고 있어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대전시에서는 물리적 공간개선과 더불어 의식측면을 포함한 보다 종합적인 검토가 사료된다.



## IV

---

### 대전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방안

---

1. 대전시의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추진 계획
  2. 대전시의 유니버설 디자인 사례조사
  3. 사례지역 가로환경의 문제점 및 시사점
  4. 대전시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방안
-





## IV. 대전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방안

### 1. 대전시의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추진 계획<sup>25)</sup>

#### 1) 정책목표

##### □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구현

- 건축물, 도로, 공원, 공공교통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정비를 통하여 사회적 약자가 배려된 기능적 도시 구현
-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을 기본으로 하는 도시디자인 창출과 3천만 그루 나무심기와 연계 된 쾌적하고 푸른 삶의 도시 구현

##### □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생활환경 구현

-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이동과 접근성이 좋은 생활환경, 기능적 공간 및 시설을 구역 단위의 정비계획 수립으로 편리한 생활환경 구현

#####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의 기능 회복

- 건축물, 도로, 공원, 공공교통시설의 구상·설계 단계에서부터 장애적인 요소 제거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의 기능 회복
- 대전시청사, 각 구청사 등 공공시설물의 단계별 정비계획을 통한 시민들의 편의증진과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 확산



<그림 IV-1> 대전시 유니버설 도시 구현 추진방향

25)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건축과,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추진계획 내부자료, 2008.

## 2) 총괄 사업계획



<그림 IV-2> 대전시 유니버설 디자인 진행단계

### □ 준비 단계(2008)

- 연차별 로드 맵 및 실행계획 수립
-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워크숍 추진('08.4.22)
  - 목적 : 관련 공무원, 시민들의 관심제고 및 공감대 형성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인증 추진
  - 시범사업 : 대전시청사 건축물 1등급 인증 추진
  - 적용방법 : 신규 건축물, 도로, 공원, 공공교통시설에 인증제도 적용
- 제도개선을 통한 기반 마련
  - 유니버설디자인 매뉴얼 제작·배포
    - ☞ 본 매뉴얼은 우리시에서 자체 제작하여 관련 용역비 절감
  - 건축물, 도로, 공원, 공공교통시설의 제도개선을 통한 기반 마련

### □ 확산 단계(2009)

-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1차 시범사업 추진
  - 대상 : 공공 건축물
  - 전수조사 실시 후, 대상지 선정

-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 추진
  - 대상 : 10만㎡ 이상의 구역
  - 목적 :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정비된 시범 거리 조성 및 구역인증 실시
- 유니버설디자인 세미나 추진
  - 목적 : 민간 건축물 자율정비 확산과 정비 필요성 공론화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확산
  - 건축물, 도로, 공원, 공공교통시설 신설·정비 시 적용

□ 본격화 단계(2010)

-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2차 시범사업 추진
  - 대상 : 도로, 공원
  - 전수조사 실시 후, 대상 선정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본격 추진
  - 건축물, 도로, 공원, 공공교통시설에 대한 인증 추진
- 민간 건축물 자율정비를 위한 협약 및 정비 추진
  - 대상 : 건축물, 보행접근로



<그림 IV-3> 대전시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추진 프로세스

<표 IV-1> 대전시 유니버설 디자인 추진단계별 순기표

추진 단계	세부 사업	분기별 추진일정		
		'08	'09	'10
준비 단계 (2008)	① 연차별 로드맵 및 실행계획 수립	■		
	②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워크숍 추진	■		
	③ 대전시청사 건축물 인증 추진	■		
	④ 제도개선을 통한 기반 마련	■	■	■
확산 단계 (2009)	①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1차 정비사업 추진		■	■
	②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확산		■	■
	③ UD Street 시범사업 추진		■	■
	④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1차 세미나 추진		■	
본격화 단계 (2010)	①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2차 정비사업 추진			■
	② 민간 건축물 자율정비 사업			■
	③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본격 추진			■
	④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2차 세미나 추진			■

### 3) 주요사업 세부 추진계획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도입

- 목적 : 누구나 편리한 생활환경 도시구현을 위한 시민들과 공무원들의 공감대 형성 및 정량화된 성과 관리
  - 인증종류 : 도시인증, 구역인증, 개별시설물인증(건축물, 도로, 공원 등)
  - 추진 계획
    - 대전시청사 건축물 1등급 인증 추진, '08. 4 ~ 08. 6
    - 유니버설디자인 매뉴얼 제작, '08. 4
- (인증제도 및 편의시설설치기준 제시를 위한 매뉴얼 제작)

-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에 대한 관심제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워크숍 추진, '08. 4 (매뉴얼 검토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구현을 위한 방향 모색)
- 유니버설디자인 매뉴얼 지침 반영 유도, '08. 6  
(건축물, 도로, 공원, 공공교통시설에 매뉴얼 지침 반영 유도)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 건축물, 도로, 공원, 공공교통시설 등을 누구나 접근·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생활 환경 구축 및 조성을 촉진하는 인증제도
- 주관기관 : 국토해양부, 보건복지가족부



<그림 IV-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정비사업 추진

- 목적 : 기존 공공건축물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건축물로 정비하여 시민의 편의증진 및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기반 마련
- 대상 : 각 구청사 등 공공건축물
- 추진 계획
  -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실시, '08. 8
  - 인증제도 예비심사와 사업비 산출을 통한 정비계획 수립, '08. 9

-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1차 정비사업 추진, '09. 3  
(대상 : 각 구청사)
-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2차 정비사업 추진, '10. 3  
(전수조사 결과 후 활용도가 높은 공공시설물 선정)

#### □ UD STREET 시범사업 추진

- 목 적
  - 유니버설디자인의 표준화된 거리를 제시함으로써 유니버설디자인 선도 도시이미지 구축
- 대상 : 10만㎡ 이상의 구역
- 추진 계획
  - 대상지 선정(유동인구, 상징성 등 고려), '09. 4.
  - 대상 구역의 예비심사 및 정비를 통한 구역인증 실시, '09. 5

#### □ 민간 건축물 자율정비 사업 추진

- 목적 :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다중이용 건축물에 자율정비 및 인증유도를 통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활성화
- 대상 :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다중이용시설
- 추진 계획
  - 관련 세미나 개최 등 민간자율정비 분위기 조성
  - 협약 체결을 통한 민간 건축물 자율정비 유도, '10. 1

### 4) 기대효과

#### □ 유니버설 디자인의 선도 도시이미지 구축

- 대전시청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1등급 인증을 시작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정비지원사업 등을 선도하는 도시이미지 구축

- 건축물, 도로, 공원, 공공교통시설의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과 정비를 통한 사회적 약자가 배려된 기능적 도시 구현
- 유니버설디자인 개념 확산으로 시민들의 인식전환과 자율정비 촉진

□ **고령화에 준비된 살기 좋은 도시환경 구축**

- 고령화 사회를 위한 건축물, 도로, 공원, 공공교통시설의 정비가 완비된 무장애 도시구축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실버산업 등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효과 기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 확보**

-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및 살기 좋은 도시 선정 시 점수 부여
- 관련 정책이나 사업 시행 시 혜택의 부여

## 2. 대전시의 유니버설 디자인 사례조사

### 1) 대전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사개요

- 본 장에서는 대전지역의 배리어 프리와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의 전단계인 장애인, 노약자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는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 조사의 대상지역은 필자가 생활하고 있는 유성구 구즉동(관평동, 송강동일원)과 주변 신탄진동, 그리고 근무처 인근의 서구 월평동, 시청사 주변을 중심으로 배리어 프리와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였다.
  - 구즉동은 신개발지인 관평동 일대의 테크노밸리와 90년대 초에 개발된 송강지구, 둔산, 월평동은 80년대 말에 개발된 지구로서 주로 공공기관 주변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 조사대상은 대전지역의 사회기반시설의 하나인 도로 및 보행환경, 교통시설 등 가로환경시설과 생활주변시설을 중심으로 2008. 6-10월에 걸쳐서 필드 조사를 실시하였다.
- 가로환경시설은 건물로의 접근성, 주차장, 현관주위, 경사로, 출입구, 엘리베이터, 도로에서의 보도와 차도의 분리, 보도의 폭과 구배, 횡단보도, 입체횡단시설, 단차(턱), 보도포장, 벤치, 음수대, 공중전화기 등을 추출하였으며, 이들의 배리어 프리와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 가로환경시설의 요소별 정비지침 체크리스트는 일본의 동경도, 나고야시의 복지도시환경 정비지침에 포함된 가로환경의 정비기준을 본 연구조사의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26)

---

26) 최동식, 전제논문, 대구경북연구원, 2007. p.122

<표 IV-2> 가로환경의 요소별 정비지침 체크리스트

요 소	정 비 지 침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에서 건물입구를 연결하는 축이 되는 보행자 동선에 안전하게 통행 가능한 보행자 통로를 설치한다</li> <li>- 통로는 자동차도와 분리를 원칙으로 한다</li> <li>- 도로는 극단적인 단차가 없도록 계단 혹은 단차가 있을 경우 경사로를 설치한다</li> </ul>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에 따라 휠체어사용자가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설치한다</li> <li>- 주차공간의 위치는 외부출입구에 휠체어로 접근하기 쉬운 장소로 한다</li> </ul>
현관주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관문은 휠체어사용자 등이 지장없이 출입이 가능하도록 개구폭원확보</li> <li>- 현관문 전후에 있어서 단차를 주지 않는다</li> <li>- 비상시를 대비해 수동식 외개구문을 병설한다</li> <li>- 현관문의 전후에는 휠체어의 회전에 필요한 수평공간을 확보한다</li> <li>- 현관은 시력장애자도 알기 쉽도록 위치, 형상, 배색, 조명 등을 배려한다</li> </ul>
경사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행 동선상에 단차가 있는 경우는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단차해소에 배려한다</li> </ul>
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구는 고령자나 장애자 등이 지장 없이 출입이 가능하도록 폭원의 확보와 단차의 해소에 배려한다</li> </ul>
엘리베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엘리베이터는 상하이동의 수단으로서 유효한 설비이므로 가능한 한 설치한다</li> <li>- 엘리베이터중 적어도 1대는 휠체어사용자나 시각장애자가 혼자서도 조작이 가능하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li> </ul>
보차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도와 차도는 분리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li> <li>-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방법은 도로의 제반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li> </ul>
횡단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행자의 안전성 등을 고려한 장소를 설정하고 시각장애자의 이용상황을 배려하여 음향식 신호기를 같이 설치한다</li> </ul>
보도폭/구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자나 장애자 등이 안심하고 통행이 가능하도록 보도의 유효폭원은 가능한 한 넓게 확보한다</li> <li>- 휠체어사용자 등이 안전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보도의 구배는 가능한 한 완만하게 한다</li> </ul>
입체횡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교나 지하횡단보도 등의 입체횡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고령자나 장애자 등이 이용하기 쉬운 구조로 한다</li> </ul>
보도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자나 장애자 등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평탄성, 미끌어지지기 어렵고 물빠짐이 좋은 재료를 선택하여 시공한다</li> </ul>
음수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휠체어사용자도 이용 가능한 구조로 한다</li> <li>-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배려한다</li> </ul>
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자나 장애자 등이 보행 중에 휴식이나 교류가 가능한 시설로서 필요에 따라 도로상에 벤치 등을 설치한다</li> </ul>
공중전화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휠체어사용자,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고령자 및 외국인의 이용이 곤란하지 않도록 전화기종, 전화대 등에 배려한다</li> </ul>
야간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자나 장애자 등이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밝기를 유지한다</li> </ul>
안내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밝고 큰 문자 혹은 기호를 사용한다</li> </ul>

## 2) 대전시 유니버설 디자인 현황

### (1) 접근성

- 도로에서 건물입구를 연결하는 축이 되는 보행자 동선에 안전하게 통행 가능한 보행자 통로를 설치한다
- 통로는 자동차도와 분리를 원칙으로 한다
- 도로는 극단적인 단차가 없도록 계단 혹은 단차가 있을 경우 경사로를 설치한다

	
<p>농업기술센터 ↓ 정문에서부터 본 건물 현관에 이르기 까지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설치됨. 장애인 주차장 바로 옆에 경사로 설치로 접근성이 양호 ↓</p>	<p>장애인 주차장소의 현관 반대쪽에 경사로 위치. 경사로 입구에 배달된 음식 반납 그릇이 놓여져 있음으로 접근에 불편 초래 ↓</p>
	
<p>본 건물에는 <u>충효예교실</u>, 노인회관, 푸른마을 컴퓨터, 사회복지관 등에 많은 이용자들의 출입이 있으나, 중앙부에 경사도가 없고 건물 측면에 있음 ↓</p>	<p>우체국 건물에 경사로는 있으나, 점자보도가 노란색이 아닌 적색이며, 점자블록과 경사로 사이가 시멘트 포장으로 매끄럽지가 않음 ↓</p>

**(2) 주차장**

-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에 따라 휠체어사용자가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설치한다
- 주차공간의 위치는 외부출입구에 휠체어로 접근하기 쉬운 장소로 한다

	
<p>수영장입구 ↙ 장애인 주차장에 정상인의 차가 주차, 주차장에서 바로 건물로 들어가는 경사가 없음 ↘</p>	<p>장애인 주차장소 안내 판 ↙ ↙ ↘</p>
<p>↙</p>	<p>↙</p>
	
<p>본 건물은 공원의 화장실로, 장애인 화장실은 마련되어 있으나, 화장실 입구의 주차장에는 장애인을 위한 주차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음 ↙ ↙</p>	<p>운전자를 위한 쉼터 시설로서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운전자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고, 도로변 잠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됨 ↘ ↙</p>

	
<p>은행부설 주차장으로서 장애인 주차공간과 일반인 주차공간의 크기가 같음</p>	<p>경사로 바로 옆에 장애인 주차장이 마련되어 청사를 방문하는 장애인에게 편의 제공 마련됨</p>
	
	
<p>장애인 주차장의 경우 출입구에 장애인 주차장 알림 표시판 필요</p>	<p>장애인 주차 안내표시판으로,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전화번호가 명기되지 않은 채 〇〇〇-〇〇〇〇'으로 되어 있음</p>

**(3) 현관주위**

- 현관문은 휠체어사용자 등이 지장없이 출입이 가능하도록 개구폭원 확보
- 현관문 전후에 있어서 단차를 주지 않는다
- 비상시를 대비해 수동식 외개구문을 병설한다
- 현관문의 전후에는 휠체어의 회전에 필요한 수평공간을 확보한다
- 현관은 시력장애자도 알기 쉽도록 위치, 형상, 배색, 조명 등을 배려한다



현관의 정문, 양 측면 어느 쪽에도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경사도가 없으며, 입구 모두 부분에 단차가 있음

상점입구에 단차가 존재함으로써 출입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체로 경사판을 설치함



초등학교 건물로서 입구에 단차가 있음으로써 교실로 직접 휠체어의 출입이 제한됨. 이 학교는 경사로 위의 건물 정면 현관에 경사도가 설치

사회복지시설로서 2층에는 장애인 쉼터, 물리치료실이 있으며, 3층에는 경로식당이 있음. 입구에 장애인 출입 점자블록의 설치와 출입문의 자동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4) 경사로

- 통행 동선상에 단차가 있는 경우는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단차해소에 배려한다



현관의 정문, 양 측면 어느 쪽에도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경사가 없으며, 입구 모두 부분에 단차가 있음



단차의 해소를 배려한 경사로 설치



초등학교 출입문에서 교실로 연결되는 통로로서 경사가 급하여, 장애인, 휠체어 이용하는 학생들의 출입에 어려움이 있음



초등학교 건물로서 경사로 설치가 안됨. 경사로는 이 학교 본관 현관에 설치되어 있음

(5) 출입구

- 출입구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이 지장 없이 출입이 가능하도록 폭원의 확보와 단차의 해소에 배려한다



본관의 출입구로서 점자블록이 설치된 출입문은 닫혀져 있는 상태임. 점자블록의 색상은 황색계열을 원칙으로 하되, 주변색과 조화되는 바닥재의 색상 중 명도의 차이가 크고 구별하기 쉬운 색으로 해야 함

화장실 후면 출입구로 단차가 있음



회사의 현관 출입문으로 경사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장애인 주차장에서 출입문으로 직접 연결되는 경사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반대편에 설치됨



**(6) 엘리베이터**

- 엘리베이터는 상하이동의 수단으로서 유효한 설비이므로 가능한 한 설치한다
- 엘리베이터중 적어도 1대는 휠체어사용자나 시각장애자가 혼자서도 조작이 가능하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p>입체 횡단시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로 장애인, 노약자를 배려한 설치, 작동은 되지 않음</p>	<p>엘리베이터까지 점자유도 블록이 설치됨</p>
	
<p>건물의 엘리베이터 이용시설 안내</p>	<p>엘리베이터 앞의 점자블럭은 설치되어 있으나, 현관입구에서부터 엘리베이터까지 연결이 되지 않음</p>

	
<p>장애인용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킴</p>	<p>점자 유도블럭을 따라 건물로 진입, 건물 진입시 자동문 작동</p>
	
<p>건물안의 유도블럭 색은 바닥 색상하고 유사</p>	<p>장애인용 버튼 앞에 노란색 유도블럭</p>

**(7) 보차분리**

- 보도와 차도는 분리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방법은 도로의 제반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p>보도에 주차함으로써 통행에 지장 초래</p>	<p>보도외 차도를 점유하고 있는 천막으로 보행과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p>
	
<p>보도와 자전거도로의 병행 표시</p>	<p>보도와 자전거도로의 병행 표시</p>

(8) 횡단보도

- 보행자의 안전성 등을 고려한 장소를 설정하고 시각장애자의 이용상황을 배려하여 음향식 신호기를 같이 설치한다

	
<p>버튼을 누른 후 잠시 후 잠시 기다리면 신호가 들어옴. 그러나 버튼을 누른 뒤 안 누르던 간에 보행신호가 들어오는 시간은 똑같음</p>	<p>안내표지판의 눈높이 보다 높게 설치됨</p>
	
<p>안내간판의 높이가 너무 높게 걸려 있음</p>	<p>이 도로는 차량 통행량은 많고, 사람의 통행량은 적은 도로임</p>

(9) 보도폭/구배

- 고령자나 장애인 등이 안심하고 통행이 가능하도록 보도의 유효폭원은 가능한 한 넓게 확보한다
- 휠체어사용자 등이 안전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보도의 구배는 가능한 한 완만하게 한다

<p>보도의 유효폭원이 안됨. 휠체어 <u>통행시</u> 지나가지 못함</p>	<p>네거리로 우측으로의 <u>통행시</u> 전봇대로 인한 장애요인 등장</p>
<p>도로를 점유함으로써 통행에 불편을 초래</p>	<p>학교 앞 도로 우측에서부터 내리막길 위험 상존. 장애인 및 노약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도로 정비 필요</p>

**(10) 입체횡단시설**

- 육교나 지하횡단보도 등의 입체횡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쉬운 구조로 한다

	
<p>대덕테크노밸리의 입체횡단도로</p>	<p>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됨</p>
	
<p>지하도로의 휠체어 리프트</p>	<p>백화점 앞 지하보도로서 낮에는 노점상으로 가득참</p>

**(11) 보도포장**

- 고령자나 장애인 등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평탄성, 미끌어지기 어렵고 물빠짐이 좋은 재료를 선택하여 시공한다

<p>공사 중 보행도로 차폐</p>	<p>건널목의 접근제거 필요</p>
<p>가운데 원어는 나무를 심었던 곳으로 현지 구덩이가 남음</p>	<p>보행 도로의 블록 지정비 필요</p>
<p>보도 위 경계석이 뽑힌 차로 방척</p>	<p>보도와 차도의 턱이 높고, 보도 위에 자동차 주차</p>

**(12) 음수전**

- 휠체어사용자도 이용 가능한 구조로 한다
-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배려한다

	
<p>휠체어 사용자의 이용에 어려움 니지</p>	<p>휠체어 사용자가 들어갈 때에는 문제가 없으나 나올 때는 턱에 걸릴 수 있음</p>
	
<p>휠체어 사용자의 이용에 어려움 니지</p>	<p>음수대 바닥, 설치 공사 중에 낙서, 시민 의식 문제</p>



**(13) 벤치**

- 고령자나 장애인 등이 보행 중에 휴식이나 교류가 가능한 시설로서 필요에 따라 도로상에 벤치 등을 설치한다

	
<p>동반이가 없는 벤치</p>	<p>동반이가 없는 벤치</p>
	
<p>동반이가 있는 벤치</p>	<p>동반이가 있는 벤치</p>
	
<p>동반이가 없는 나무 및 돌 벤치</p>	<p>동반이가 없는 벤치</p>

(14) 공중전화기

- 고령자나 장애인, 어린이 등이 보행 중에 눈에 띄는 장소에 이용하기 쉽도록 공중전화기를 설치한다

	
<p>턱으로 인하여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에 어려움 니지</p>	<p>시멘트로 경사로를 설치했으나, 뒤로 나올 때 안전문제 니지</p>
	
<p>빅화점 앞 전화박스어 턱이 있으며, 손잡이가 달린 문을 여는 데 힘이 들기 때문에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들의 이용에 어려움 니지</p>	<p>관공서 앞 공중전화박스 턱이 있음</p>

**(15) 교통시설(버스정류장)**

- 고령자나 장애인, 어린이 등이 편안하게 승차할 수 있도록 버스진입 식별이 용이하고 주변의 위험물을 제거한 곳에 정류장을 설치한다

<p>버스정류장하고 버스가 정류하는 장소가 떨어져 있으며, 나무 때문에 버스의 진입을 볼 수 없음 자전거도로에 소화전의 돌출로 위험성 내지</p>	<p>시내 버스정류소 앞에 자전거도로 및 쓰레기통 위치</p>
<p>시내 버스정류장이 도로 점유로 통행에 불편 초리</p>	<p>시내 버스정류소 양쪽이 밀폐가 되어 장애인의 이용에 어려움 있음</p>

**(16) 화장실**

- 고령자나 장애인, 어린이 등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 스위치 등 화장실 관련 시설을 점검한다

	
<p>공원 화장실로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자동문은 작동이 되지 않음</p>	<p>육중한 미닫이 문</p>
	
<p>접이식 미닫이 문</p>	<p>스위치 작동이 안됨</p>

**(17) 생활 주변시설(공사장, 가게 앞, 버스정류소, 쓰레기 방치, 간판 등)**

<p>공사중인 곳으로 건축자재 및 공사현장 안전벽이 보행 및 자전거 도로로 돌출되어 통행에 불편 초래</p>	<p>보도까지 점유한 상점 전열시설</p>
<p>공사 중 자재들의 길거리 방치</p>	<p>길거리 간판의 무단 점유</p>
<p>경사로 옆에 배달시킨 음식물 그릇의 반납장소</p>	<p>보도와 차도를 점유한 천막</p>

<p>무단투기된 쓰레기 분투</p>	<p>길거리 간판 및 상록진열대의 무단 점유</p>
<p>보행로의 점유로 통행어 불편 초리</p>	<p>주유소에서 세차한 후 보도를 통하여 차도로 진입할 수 있음</p>
<p>마신 음료수 병을 버스도착 안내판 위에 방치</p>	<p>초등학교 앞 포시판이 뚫힌 상대로 방치</p>

<p>중학교 후문으로 도색 및 벽면 정비가 필요</p>	<p>공원입구의 쓰레기 방치 기둥에 붙인 안내문은 "살기좋은 생활환경 만들기"임</p>
<p>마신 음료수 통을 버스도착 안내판 위에 방치</p>	<p>입간판은 농업기술센터, 버스정류장에는 농업기술센터</p>
<p>나무로 인하여 철책어 통과어 지장 초리</p>	<p>건너편 경계석 사이의 유도블럭이 경계석에 붙어 있음</p>

<p>공공교통시설, 공사 후의 자치 방치</p>	<p>시니어스정류장 근처 조명등 위에 음료수통, 종이컵, 담배갑 방치</p>
<p>시니어스 정류장 승강장 유리벽에 광고지 붙었던 흔적으로 지저분함</p>	<p>빅화점 앞 중심도로서 보행, 자전거도로의 병행 표지판</p>
<p>보행도로 한가운데 자전거도로?</p>	<p>장애인 주차장 앞 승용차 접거</p>



### 3. 사례지역 가로환경의 문제점 및 시사점

- 본 조사를 통하여 사례지역 가로환경의 배리어 프리 문제점을 <표 V-2>의 관점과 이용자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추출해 보았다.

#### 1) 문제점

##### □ 보도

- 보도의 문제점으로는 보도와 차도사이의 단차에 의해 넘어지기 쉽고, 보도 포장의 마감으로 인한 약간의 단차의 존재, 벤치 등 휴식시설이 미비하다.
- 보도 위에 주차된 자동차와 도로변에 간판이나 상품의 진열로 인하여 보행 공간 확보가 어렵고, 시각장애자용 유도 블록 설치의 미비 등이 지적되었다.
- 특히 휠체어나 유모차의 통행에 대한 보도의 문제점으로는 보도의 단차가 지적되었으며, 횡단구배가 커서 위험이 내재해 있고, 각종 매설물 시설의 뚜껑 돌출, 방치된 쓰레기 등이 장애가 되고 있어 통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보도포장의 요철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하다 등이 지적되었다.

##### □ 주차장

- 장애인용 주차장이 확보되더라도 그곳에서 목적건물로의 이동에 있어서 자동차의 위험에 노출된 경우도 많았으며 장애인 주차장의 폭이 일반 차량을 주차하는 곳과 똑같은 크기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 장애인 주차장이 잘 설치된 공공시설물에도 입구에 장애인 주차장을 알리는 안내 사인이 필요하다고 보며, 장애인 주차장에 정상인들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이 눈에 띄었다.

##### □ 현관 및 출입구 주위

- 오래된 건물의 경우 거의 단차가 있음으로써 출입에 어려움이 있고, 새로 건축된 건물의 경우에도 단차가 존재하였다.

-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등 교육시설의 경우 중앙의 현관을 통하는 곳에만 경사로가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학교에 다니는 장애인의 출입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경사로

- 아직 배리어 프리 단계로 나타났으며, 경사로의 경사도가 심한 경우 휠체어의 이용에 위험이 내재한 경우도 볼 수 있었으며, 경사로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도 보였다.
- 출입구는 상점의 경우 거의 단차가 심했으며, 건물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점 주인들이 임의로 설치한 경사로가 많았다.
-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시설의 경우 출입문이 자동문으로 설치된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엘리베이터

- 엘리베이터시설은 휠체어 사용자나 시각 장애인이 혼자서라도 조작이 가능하여, 장애인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앞에 유도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대전시청의 경우 출입구로부터 엘리베이터 까지 유도블록이 잘 정비되어 있으나, 대부분 출입구에서 엘리베이터까지의 유도 블록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 입체횡단시설의 엘리베이터는 점검 중, 사용중지 등의 표시가 되어 있었으며, 작동되지 않아 노약자, 장애인들이 이용이 쉽지 않았다.

#### □ 보차분리

- 보차분리는 대부분 잘 되어있다고 볼 수 있으나 페인트칠이 낡아 구분이 어려운 곳이 눈에 많이 띠었다.
- 최근 자전거 이용이 많은 때에는 보차분리 시 자전거 도로 표시가 필요하다고 보며, 자전거의 통행로의 표시가 일정치 않아 거리의 좌측, 우측으로 확실히 정했으면 한다.

- 보행도로와 자전거의 통행이 병행된 표지가 걸려 있는 도로가 대부분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 보행 및 자전거 통행량이 많은 도로의 경우 자전거 도로와 보도와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 □ 횡단보도

- 횡단보도의 경우 아직 시각장애자의 이용 상황을 배려한 음향식 신호가 전무하고, 차량 통행량이 적은 곳에 설치되는 보행자 작동 버튼 스위치(버튼을 누른 후 잠시 기다리면 신호가 들어옵니다)의 경우 차량 통행이 잦은 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버튼을 눌러도 들어오는 신호 시간은 안 누르고 기다릴 때와 똑같았다.
- 교차점의 단차마감이 부실하고, 보도와 차도 차이의 단차가 심한 경우가 많았으며, 보도 위에 맨홀 뚜껑, 공사 후 마감이 안 된 경우, 배수구의 위험성이나 난간의 미설치로 인하여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이용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 특히 휠체어이용자에 있어서 교차점의 단차로 인하여 활동에 지장과 신호 버튼의 설치가 필요, 횡단보도 통과 시간이 짧은 점 등이 지적되었다.
- 차도의 경우는 불법주차로 인한 통행의 불편, 목적건물로의 접근에 있어서 주 출입구 부근의 단차가 존재하여 상하이동에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시각장애자용 유도블록의 미설치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함이 지적되었다.

#### □ 공중 화장실

- 대부분의 공중화장실은 잘 정비가 되어 있었으며, 근린공원의 한 화장실은 클래식 음악이 흘러 나오는 곳도 있었다.
- 각 화장실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으나, 아침 시간에 조사를 해서 그런지 대부분 문이 작동되지 않았다.
- 장애인 화장실 문에는 미는 커튼식의 여닫이 문, 옆으로 열리는 자동문, 그리고 당기는 문 등 다양한 형태로 설치되어 있으나, 버튼을 누르는 자동문의 경우 작동이 되지 않았다.

- 유리로 만들어진 여닫이 문이나 밀고 당기는 문의 경우, 문의 중량으로 인하여 노약자 등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 음수전

- 공중장소에 설치된 음수전의 경우 주위에 단차가 있어서 휠체어 이용자들이 혼자서 이용하기가 어렵고, 음수전에 들어갈 때는 쉽게 들어가도 나올 때 무리가 있는 곳도 있었다.

#### □ 공중전화기

- 최근 개인 휴대폰의 소유로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으나, 공중전화의 대부분은 휠체어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으며, 공중전화 박스에 문이 있는 경우, 노약자, 어린이의 이용에는 불편할 것으로 보였다.

#### □ 버스정류장

- 시내버스 정류장은 버스의 도착을 알려주는 안내시설 등 하드웨어는 잘 정비가 되어있으나, 정류장의 박스의 유리가 각종 스티커, 광고물 전단지 등의 탈부착 흔적, 음료수통, 우유통 등 각종 쓰레기로 지저분한 상태였다.
- 특히, 한 버스 정류장의 경우 버스가 서는 곳과 정류장의 거리가 멀거나, 길가의 가로수로 인하여 버스의 진입을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 2) 시사점

#### □ 시민의식의 고취

- 이번 조사에서 볼 때, 아무리 좋은 시설물과 기반시설을 갖추었다고 해도 시민의식부터 장애요소를 제거하여 성숙하지 않으면 배리어 프리 도시,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데 어렵다고 보며, 배리어 프리 도시,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를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민참여와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본다.

- 즉, 유니버설디자인의 보급을 위한 계몽과 시민들의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법과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한 인재육성, 고령자·장애자 등이 원활히 이동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이용에 수반하는 여러 정보나 고령자나 장애자의 사회참가를 촉진하기 위한 문화 정보 등을 가능한 한 신속하고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본다.

#### □ 모든 주체의 참여

- 고령자나 장애자가 생활하기 쉬운 사회기반정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이 지역에 있어서의 배려의 주체로서의 역할인식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이 고령자나 장애자에 대한 깊은 이해를 공통의 문제로서 인식하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 또한 시민·사업자·행정이 각각의 역할과 책임 아래에서 협동을 통하여 사회기반정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 유니버설 디자인개념의 사회기반시설 정비의 추진에는 사업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사업자의 이해와 협력이 없으면 실효성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 또한 행정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행정은 고령자나 장애자가 불편 없는 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일반시민에 대한 유니버설 디자인 이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자발적인 활동이 촉진되도록 이에 대한 보급 및 정보제공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4. 대전시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방안

### 1) 대전시의 유니버설디자인 지침 설정

#### □ 지침 취지

- 공공기관이 정비하는 도로, 하천, 공원, 공공건축물 등 공공시설을 비롯해서

민간 사업자에 의한 병원, 가게, 숙박, 오락시설 등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유니버설 디자인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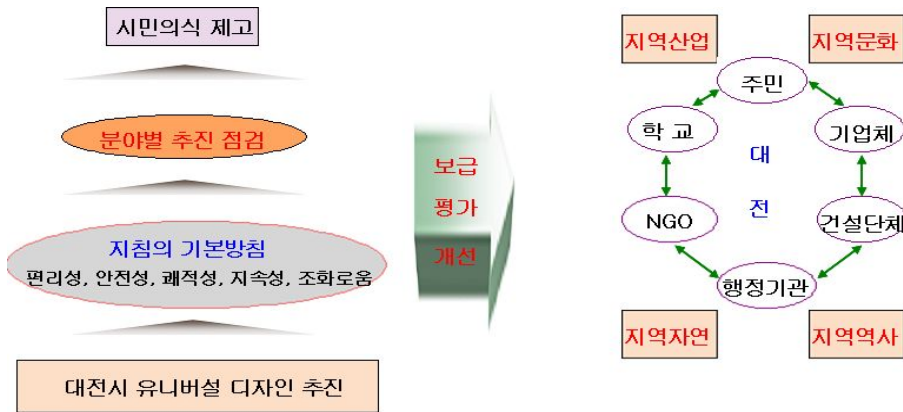
#### □ 지침 특징

- 누구라도 이해하기 쉬운 지침
- 함께 만들고 함께 육성하는 지침
- 변화에 대응해서 진화하는 지침
- 이용목적별로 정리하는 지침

#### □ 기본방침 설정

- 사회기반시설 정비에 있어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은 종합적 시점에서 계획을 세워야하고 이를 토대로 방향과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두고 미래의 사회환경 정비 비전을 확립해야 한다.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할 지 계획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 시민들을 대상으로 꾸준한 홍보와 계몽활동이 병행되어야 하며, 최소한 다음 기준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 편리성
    - 사용하는 방법을 직감적으로 이해하고 상황 설명을 효과적으로 하는 시설
    -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수단으로 필요한 정보를 쉽고 충분히 제공받는 시설
    - 이용자의 이해력이나 언어능력의 차이를 문제되지 않는 시설
    - 장기간에 걸쳐 육체적으로 부담이 따르지 않는 시설
    - 오른손과 왼손을 모두 사용가능하며 이용자에게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강하지 않는 시설
    - 보조용구나 보조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
    - 이용 장소에 근접하기 쉽고 이용 폭이 적절한 시설

- 안전성
  - 안전에 대한 배려가 확보되어 있는 시설
  - 위험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시설
  - 주의가 필요한 조작에서 부주의한 조작을 유발하지 않는 시설
  - 위험할 때나 사용방법이 다를 때 주의나 경고를 발하는 시설
  - 위험한 부분이 방호되어 있는 시설
  - 사계절 모두 안전한 시설
  - 재해 시나 예측 못한 사태가 발생해도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시설
- 쾌적성
  - 특정한 사람이 특별 취급되거나 싫은 생각을 하지 않는 시설
  - 중요한 것이 잘 보이도록 시선이 확보되어 있는 시설
  - 프라이버시를 배려하는 시설
  - 계절에 좌우되지 않는 시설
  - 피곤할 때 쉴 수 있는 시설
- 지속성
  - 가능한 한 같은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 이용자의 페이스에 맞출 수 있는 시설
  - 보조기구의 사용이나 사람의 도움이 충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
- 조화로우름
  - 색이나 형상 등의 인상이 이용자에 의해 저항감 없이 받아들여지는 시설
  - 지역의 특성이 살아있고 주변경관과 조화된 시설
  - 자연이나 환경, 동식물에게 배려된 시설
  - 특별하게 튀지 않는 시설



<그림 V-1> 대전시 유니버설 디자인 지침 구성

□ 분야별 추진방향(점검사항)

- 공공시설 및 건축물
  - 우선 이전에 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비를 추진하며 건축사나 설계 시 공업자 등 건설관계자의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지식보급과 향상에 노력하고 불특정 다수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건설계획 단계부터 개념을 도입 필요
  - 공공시설에 있어서 출입하기 쉬운 도어의 설치, 화장실 개선, 난간설치, 이용하기 쉬운 관람석 배치, 비상구 계단, 경보장치 등 긴급 재해를 상정한 안전대책, 사인환경 정비, 외국어 표시, 음성장치 안내 등 설비
- 가로환경 도로 보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기준에 의해 정비되고 있지만 실제 이용자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정비가 진행되어 왔다. 도로표식이나 장애물 제거, 도로 폭 확보, 도로정비, 알기 쉬운 도로표식 등을 추진하고 있다.
- 공공교통 기관 및 시설
  - 지하철 역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면서도 환승에 불편을 느끼는 모든 사람을 배려한 원활한 이동수단 확보의 불충분한 곳이 많다. 다목적 화장실이나 역의 신설 개량 등 교통관련 시설의 정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 정비하고 있다.



○ 공원 관광지 등

- 이용 대상자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공원 내 각종 시설이나 이동경로를 점검한다. 처음으로 방문하는 사람이나 외국인에게 있어 안내표시 등 정비가 이용자 모두의 신체적 피로를 달랠 수 있도록 한다.
- 외국인이나 공원 방문자에게 정보제공이 잘 되도록 안내판 등 정비나 설치 장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 상업시설

- 통로 폭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어 편안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상가에 쾌적한 상업공간의 형성을 위한 물리적이고 소프트한 측면의 검토가 필요하다. 상품의 전시나 소비자에 대한 접객이나 안내표시의 배려가 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상가의 정비 부담 없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 확보, 쾌적하고 매력 있는 상업관계자의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의 보급이 필요하다.

○ 주거시설

- 주택은 모든 시민에게 있어 중요한 생활기반이며, 고령자나 장애자에게 있어 배리어 프리화된 주택정비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공적 주택의 정비나 민간집합주택의 공용부분에 있어 배리어 프리화 추진하고 있다.

## 2) 대전시의 유니버설디자인 지역조성 추진방안

### □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조례 제정

○ 법률 정비

- 선진국의 관계법령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그들이 생활하는데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국내 관련법은 물리적 요소만을 충족시키도록 강제되어 있는 차이가 있다.
- 형식적인 방향에서 벗어나 종합적 관점에서 대전시 자체의 조례를 작성하고 적절한 운용이 필요하다. 강제성보다는 이용자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지도나 조언 등 운용의 기본전략이 요구된다.

-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타 지역도 종합적인 관점보다 장애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확대된 시점에서의 제정이 필요하다.
- 조례 내용은 시민의 임무, 기본방침, 추진계획 책정, 추진협의회 및 자문기구 설치, 정보제공, 교육 및 인재양성, 자원봉사활동 촉진, 연구개발, 시설정비 기준, 검사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명기되어야 한다.
- 대전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를 2007년 제정하여 국가의 '편의시설 증진법'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완공 전에 사전검사를 통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사전검사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을 뿐 편의시설 전체를 증진하거나 유니버설디자인의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따라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의 확충과 무장애마을 만들기를 포함한 유니버설디자인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조례'를 제정한다.
-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조례에는 목적, 정의, 시의 임무, 사업자의 임무, 도민의 임무, 기본방침, 추진계획의 책정, 추진협의회설치, 계발 및 정보제공, 교육, 자원봉사활동촉진, 인재양성, 복지용구에 대한 연구개발, 정비기준, 인증서교부, 사전협의, 완료검사, 주택정비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 대전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추진조례의 실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부지침 및 기준을 제시하는 '시행규칙'도 제정하여야 한다. 시행규칙에는 취지, 공공시설(시설기준 별표제시), 특정시설(별표제시), 공공차량, 정비기준(별표제시), 인증서 교부(청구서, 인증표 제시), 사전협의(신청서제시), 완료검사(보고양식제시) 등을 제시한다.

## ○ 대전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추진조례 예시

### <전문>

장애가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 고령자도 젊은이도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은 대전 시민 모두의 바람이다.

이런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회참여기회를 확보하고 한사람 한사람이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며 자유롭게 행동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관하여 시와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시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함에 따라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더욱이 장애인, 고령자 등을 비롯한 모든 시민이 자유로운 활동과 평등한 사회참여가 가능한 사회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음의 각호에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각각 해당 각호에 정하는 것과 같다

- 1)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 2) 장애인, 고령자 등
- 3) 공공시설
- 4) 특정시설
- 5) 공공차량 등

### 제3조(시의 책무)

시는 구와 협력 또는 사업자 및 시민과 협동아래에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책정하고 이것을 실시해야 한다.

### [표] 대전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조례의 예시

시는 스스로 설치하고 관리하는 시설 등에 대해 장애인, 고령자 등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시에서 실시하는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관하여 깊이 이해하고 시가 실시하는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방침)

시는 다음의 기본방침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1) 시민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 참여 의식 고양
- 2) 모든 시민이 안전, 쾌적하도록 시설 정비
- 3) 누구나 사용하기 쉽고, 질 좋은 서비스, 알기 쉬운 정보 획득 지원

제7조(추진계획의 책정)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 계획을 책정하여야 한다. 시는 재정을 마련하고, 추진협의회의 의견청취, 의회의결을 거친다.

제8조(대전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추진위원회)

시는 추진위원회를 설립한다(생략).

제9조(계발 및 정보제공)-생략

제10조(유니버설디자인 교육활동)-생략

제11조(자원봉사활동의 촉진)-생략

제12조(안전한 생활 확보)-생략

제13조(인재 육성)-생략 등

□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추진협의회의 설치

-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추진협의회를 설치한다.
-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추진협의회’는 유니버설디자인 지역조성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15명 이내로 한다. 학식경험자와 지사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결정하도록 한다.

#### □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지역 지정

- 안전하고 빠른 유니버설 디자인 지역조성을 추진하기위해 시설 운영주체를 정비하고 일상생활을 통해 삶의 질을 체험할 수 있는 시범운영 지역을 지정한다. 고령친화 지역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 추진체계 마련

- 타 시책과의 연계
  - 행정편의 위주에서 벗어나 대전시의 모든 시책과 관련지어 바람직한 방법을 추진하는 것이 옳으며 이를 총괄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
  - 지금까지 복지행정의 일부로 추진되어 왔지만, 다른 행정조직과의 제휴가 불분명하여 많은 문제가 노정될 수 있으므로 강력한 리더십을 통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관할하는 단일 행정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 유니버설디자인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받기 위하여 다른 부서 프로그램에 지원에 응모한다(문화관광부 사업 예시 참조).

#### □ 유니버설 디자인 보급

- 시민에 대한 계몽
  - 모든 시민이 지역의 배려주체로서 역할인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민개개인이 고령자나 장애인에 대한 깊은 이해를 공통문제로 인식하고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사업자나 행정이 각각의 역할과 책임아래 협동을 통해 사회기반정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계몽활동이 중요하며, 행정의 역할도 중요하다.
- 인재육성
  - 유니버설 디자인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대학이나 관련 산업계, 시민단체 등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추진 핵이 되는 인재를 양성해야하며 행정기관을 시

작으로 민간단체 등에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한 정보나 사례의 수집과 홍보, 조사, 연구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

- 이를 위하여 교사들의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지식과 이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건축이나 디자인 등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촉진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리더육성 및 연수나 학습기회 제공, 국내외 전문가 참여의 심포지엄 개최도 필요함. 또한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축도 중요하다.

#### ○ 정보제공

- 고령자나 장애인이 필요한 정보를 원활하게 얻을 수 있고 사회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신속하고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정보공개 방법도 논의해야 한다.

#### ○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일반시민들에게 유니버설 디자인을 이해하고 지역에 조성하기 위한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참여를 유도하도록 배포한다.

##### ◆ 가이드북 내용

- 유니버설 디자인의 정의
- 대전시 유니버설 디자인 지역조성 추구 이유 및 주체
- 대전시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조례 및 정보제공
- 대전시 유니버설 디자인 참여 방법
- 대전시 유니버설 디자인 추진 방안

#### ○ 강좌 운영

-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지역조성을 위한 강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보가 행정기관, 민간단체, 시민 모두에게 용이하게 제공될 수 있다.

## □ 시민의식 제고

- 장기적으로는 모든 생활환경에 유니버설 디자인적인 견해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설의 물리적인 제약을 보완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는 마음자세가 필요하다.
- 도시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공간의 변화만이 아니라 유니버설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역민(시민) 스스로 자기 문제화해서 ‘마음의 장벽’을 해소하는 동시에 조금씩 ‘의식의 개혁’을 이루는 것이 요구된다.

---

결 론

-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





## V. 결 론

### <요 약>

- 유니버설 디자인은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 디자인은 20세기에 표준화된 틀에 끼워 맞추는 디자인에서 벗어나 보다 인간중심적이고 환경 친화적이며 다양성을 수용하는 디자인이다.
- 현대사회의 도시는 고령화와 국제화의 진전과 다양한 주민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고도화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외국인 남녀 등 모든 사람이 생활하기 편리하고 활동하기 적합한 기능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sup>27)</sup>
- 따라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분야로서 공공시설·교통시설·안내시설 등 마을 만들기, 정보 및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국·내외의 유니버설 디자인 지침과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전시가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활용해야 할 지침서를 제시했다.
- 대전시의 유니버설 디자인 사례조사를 한 결과, 금년 4월부터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고 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수립을 시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접근성, 주차장, 경사로, 출입구, 보차분리, 보도폭, 음수전, 공중전화기, 기타 시설물에서 배리어 프리정책에도 못 미치는 실태를 파악했다.
- 향후, 대전시가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특히 유의할 사항은 하드웨어의 시설보다는 선진화된 시민의식의 중요성을 무엇보다도 강조해야 한다고 본다.

27) 문경원, 유니버설 디자인이 갖추어진 도시대전, 중도일보.

## <정책적 시사점>

-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를 지향하고 있는 대전시에서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도시조성이야말로 실천과제이자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 더불어 살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It’s Daejeon’을 조성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구체적이고 필요충분한 ‘It’s Universal’을 지향하고 있는 것과 같다.
- 특히, 신개발지역 등 외부 인구유입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유니버설 디자인을 의무적으로 채택한 시범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보고서에서는 향후 유니버설 디자인 추진을 위해 주로 공공시설, 교통시설 등 물리적 공간을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침을 설정하였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시민의식의 고취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적극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시민을 계몽하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데, 각 학교·기업체·시민단체·행정기관 등의 교육프로그램에 교양강좌를 개설하여 다양한 정보와 시민의식을 제공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이다.
- 시민의식은 시민으로서 공동체에 갖는 의식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강조해야 하며, 개인적 권리를 넘어 공동체 유지발전에 요구되는 시민의 자질을 말한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이를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인터넷 시민교육을 강화, 공청회 개최, 시민평가 제도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 참 고 문 헌

-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건축과,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추진계획 내부자료, 2008.
- 문경원, 유니버설 디자인이 갖추어진 도시 대전, 중도일보, 2006. 2. 3일자(6면)
- 송낙헌, 유니버설 디자인적 도시계획 접근방향.
- 엄기복, 경상북도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대구경북연구원, 2007.
- 최동식, 건강도시 대구의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사회기반정비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연구, 대구 경북연구원, 2007.
- Mace Ronald L., The Accessible Housing Design File-Barrier Free Environments. Inc., Van Nostrand Reinhold. 1991.
- Center for Universal Design. Designing for the 21st Century :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Universal Design of Information, Products, and Environments, NC: North Carolina University.
- ユニバーサルデザインの理念に基づいて福祉のまちづくりの推進に向けて, 東京都福祉のまちづくり推進協議会.
- ユニバーサルデザイン政策大綱, 国土交通省. 平成17年7月.
- 神奈川県ユニバーサルデザイン推進指針, 神奈川県. 平成20年3月.
- おきなわユニバーサルデザイン推進指針, 沖縄県.
- 佐賀ユニバーサルデザイン推進指針: 三世代 みんなが安心して暮せるまち, 佐賀県. 平成18年3月.
- あおもりユニバーサルデザイン推進基本指針, 青森県.
- おかやまユニバーサルデザイン推進指針, 岡山県. 平成16年3月.
- やまなしユニバーサルデザイン: 暮らしやすき日本の山梨づくりをめざして, 山梨県. 平成20年3月.
- ふくしま公共施設等ユニバーサルデザイン指針, 福島県. 平成19年4月.
- 浜松市公共建築物ユニバーサルデザイン指針, 浜松市.
- 神奈川県ユニバーサルデザイン推進指針, 神奈川県. 平成20年3月.
- 조선일보, 2008. 04. 29.
- 한겨레, 2008. 09. 29.
- 파이낸셜 뉴스, 2008. 08. 05.
- 뉴스스 2008. 07. 3. / 2008. 08. 22.
- 서울신문, 2008. 05. 28.
- 세계일보, 2007.06.08.



정책연구보고서 2008-00

---

---

## 도시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에 관한 연구

---

---

발행인 육 동 일

발행일 2008년 11월

발행처 대전발전연구원

320-280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160-20

전화 : 042-530-3500 팩스 :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jdi.re.kr>

---

인쇄 : 거산기획 TEL 042-625-7701 FAX 042-625-7702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